



[속면의 경제학]
수면장애 50만명 시대
슬립테크 제품 붐물
연간 2조 '꿀잠 시장'
03



Economy

코스피	2253.83 (0.00)	코스닥	767.15 (0.00)
금리 (우대금리)	2.09 (0.00)	환율 (원/달러)	1130.40 (0.00) (9일)

2만개 기업 창업에 13조 쏟아 붓고도

3곳 중 1곳 휴·폐업, 증시상장 2건뿐... '밑빠진 독'

(6355개)

(코스닥)

41%가 영업·마케팅 실패
고성장 기업도 1.7% 불과

전통시장엔 3.7조 투입
매출은 오히려 5.5조 ↓
예산 효율성 점검 절실

정부가 중소·벤처기업과 영세 상인들을 위해 매년 수 천억원에서 수 조원씩의 국민 혈세를 쏟아 붓고 있지만 성과는 신통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등 쓰임새에 의문이 제기되는 예도 적지 않다. ◆13조 지원 창업기업, 기업공개는 고작 0.2%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중소벤처기업부 연도별 창업지원 예산> (단위: 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금액	1조1932억	1조2269억	1조5393억	1조5238억	1조7175억	1조5557억	1조8815억	2조2472억	2조6331억

(자료: 김규환 의원)

<연도별 전통시장 총 매출액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매출액	27.3	24.9	22.3	21.4	20.1	19.9	20.1	21.1	21.8

주1. 등락·인정시장 기준 주2. 매출액을 조사하는 전통시장 실태조사(각년)의 경우, 2005년에 처음 실시되었고, 2006년~2013년은 2년 주시, 2014년 이후 1년 주시로 조사 실시 (자료: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쟁 실태조사(각년도), 윤한홍 의원)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총 12조8850억원을 들여 1만 9956개 기업의 창업을 도왔다.

하지만 이들 기업 가운데 지난해 9월 기준으로 31.8%인 6355개 기업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폐업은 '영업·마케팅 실패' (40.9%)나 '자금 조달 실패' (39.5%)가 주된 이유였다.

문제는 성과다.

지원 받은 기업 중에선 고작 0.2%인 41곳이 기업공개에 성공했을 뿐이다. 이 가운데 코스닥 상장은 2곳에 그쳤고, 코넥스 상장은 3곳 뿐이었다.

이는 김규환 의원이 관련 정책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창업지원기업 이력 및 성과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다만 이 기간 창업 자금을 받은 기업 총 2만5762곳 가운데 지원이 중복된 곳은 제외했다.

창업 예산을 받고 살아남은 기업 1만3601곳(68.2%) 중엔 벤처기업 인증 기업은 3116곳으로 가장 많았다. 또 '기술혁신형기업'으로도 불리는 이노비즈 인증은 197곳이었다. '경영

혁신'인 메인비즈인증은 70곳이었다. 이 가운데는 중복해서 인증을 받은 곳도 있다.

8년 동안 창업 예산을 지원받은 2만개 기업 중에서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 곳은 아이글과미동앤씨네마 뿐이었다. 코넥스에는 씨티네트웍스, 오스테오닉스, 하우동천 3곳이 이름을 올렸다. 기업공개를 한 41곳 가운데 나머지 36곳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외부감사법인'으로까지 성장한 곳들이었다.

또 창업기업 중 상용근로자가 10명 이상이고 최근 3년간 매출액, 상용근로자가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고성장 기업은 전체의 1.7% 수준인 341개 기업에 그쳤다.

김규환 의원은 "이 기간 정부가 13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창업기업에 쏟아부었지만 이번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원에 따른 성과가 적정

한 수준인지 의문스러운 정도"라면서 "정부는 지원 기업 가운데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지원기업의 폐업 원인을 진단해 유사 실패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의 연도별 창업지원 예산은 1조1932억(2009년)→1조2269억(2010년)→1조5393억(2011년)→1조5238억(2012년)→1조7175억(2013년)→1조5557억(2014년)→1조8815억(2015년)→2조2472억(2016년)→2조6331억(2017년)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3.7조 쏟은 전통시장, 매출은 오히려 5.5조나 줄어

전통시장에도 적지 않은 혈세를 투입하고 있지만 오히려 상인들의 매출은 갈수록 악화되는 등 예산 효율성 점검이 절실하다.

(2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왕의 숲길' 산책하는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한글날인 9일 오후 경기도 여주 세종대왕 유적지를 방문. 효종 영릉을 참배한 뒤 세종대왕 영릉을 참배하기 위해 '왕의 숲길'을 지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숙종·영조·정조 임금이 행차할 때 효종 영릉을 먼저 참배 후 '왕의 숲길'을 지나 세종 영릉을 참배했다는 기록이 있다.

/연합뉴스

간간해진 감사, 기업·주주 '대혼란'

코스닥 시장 무더기 상장폐지 기업들 재감사 등 부담 가중 주주들은 혼란커져 정부 비난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기업> /한국거래소

종목	근거	법원판결
C&S자산관리	감사의견 거절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기각
감마누	감사의견 거절(감사범위 제한)	보류
넥스지	감사의견 거절(감사범위 제한)	기각
레이젠	감사의견 거절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기각
모다	감사의견 거절(감사범위 제한)	보류
에프티엔이	감사의견 거절(감사범위 제한)	보류
우성아이비	감사의견 거절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기각
위너지스	감사의견 거절(감사범위 제한)	항고
지디	감사의견 거절(감사범위 제한)	기각
트레이스	감사의견 거절(감사범위 제한)	기각
파티게임즈	감사의견 거절(감사범위 제한)	보류

올해 코스닥시장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무더기 상장폐지' 사태가 벌어지면서 주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또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도 재감사 등 부담 가중이 불가피해졌다. 일부에선 회계법인이 상장사에 지나친 잦대를 적용해 감사를 했다는 비난도 커지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넥스지, 씨엔에스자산관리(C&S자산관리), 에프티엔이, 감마누, 지디, 우성아이비, 트레이스, 레이젠, 위너지스, 모다 등에 대해 주권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하고, 정리매매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달 28일부터 7거래일 간 해당 종목은 정리매매 기간에 들어갔고, 오는 11일 완전히 상장폐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기업은 모두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C&S자산관리, 넥스지 등 6개사는 기각이 결정돼 상장폐지될 예정이지만 감마누 등 4개사는 인용 결정을 통해 상장폐지 절차가 보류됐다. 위너지스는 기각 결정에 항고할 계획을 밝혔다.

◆상장사 '회계법인 갑(甲)질 과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코스닥 11개사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게

된 데는 오는 11월 외부감사인에 관한 법률(외감법) 도입을 앞두고 회계법인의 감사가 간간해진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개정된 외감법에 따르면 오는 2020년부터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지정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감사법인 교체 과정에서 과거 부실감사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관련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회계법인이 엄격한 잣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빅4회계법인 파트너는 "지정감사제를 앞두고 회계법인들은 감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회계법인 역시 기업에 최 대한 '적정' 의견을 주려고 노력하지만 자료가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올해 법원이 4개 기업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도 이례적이란 평가다. 그만큼 법원

은 감사 결과의 적법성을 다뤄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실제 파티게임즈는 우발채무가 의견 거절의 주 요인이었다. 회사 측은 "회계법인이 부외부채에 대한 확인을 달라고 했는데 이걸 없애는 걸 없다고 증명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회계법인이 과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에프티엔이는 "최근 회계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필리핀 현지법인(Finetex Technology)과 캐나다 법인(FT EnE)의 회계처리를 국내와 호환하는 과정에서 자료제출이 늦어진 탓"이라고 말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수십억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일부 기업이 상장 유지를 포기하는 것도 재무적 부담이 커서다.

(8면에 계속)

/손영지 기자 sonumji301@

확박한 살림에... 보험해약 늘고 계약 줄고

보험사 하반기 실적 적신호

경기 불황의 그림자가 보험업계에도 드리우고 있다. 확박한 살림 탓에 보험 중도해약이 늘고 신규 보험계약은 줄고 있다. 보험사의 하반기 실적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종신보험, 연금보험 등 장기간 납입해야 하는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비교적 대출이 쉬운 보험약관대출을 찾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 지속되는 고용쇼크와 경기 불황으로 가계경제가 타격을 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대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17년 7월~2018년 6월) 생명보험사 25곳의

퇴직보험, 퇴직연금, 단체보험을 제외한 모든 생명보험상품의 해약건수는 391만6853건으로, 전년(2016년 7월~2017년 6월)보다 7.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손보사 15곳의 장기보험상품 해약건수는 402만9737건으로 전년 대비 8.2% 늘었다.

보험해약이 증가하면서 해약환급금 규모도 늘었다. 생보사의 보험 해약환급금은 최근 1년 동안 24조637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8%나 증가했다. 손보사의 보험 해약환급금도 15조7851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7% 늘었다.

보험약관대출은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보험사 약관대출 규모는 총 60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56조 원) 대비 4조8000억원(8.7%) 늘

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새 1조2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신규 보험계약은 줄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생보사들의 초회보험료는 5조2692억원이었다. 2년 새 36.5%나 줄어 들었다. 가입 후 처음 내는 보험료를 뜻하는 초회보험료가 줄어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새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감소했다는 뜻이다. 경제생활에 여유가 있어야 보험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보통이다. 생활이 그만큼 팍팍해졌다는 의미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신계약 초회보험료를 보면 생명보험 보험료는 2조6767억원, 손해보험 보험료는 736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36.9%, 15.6% 줄었다.

/김희주 기자 hj89@

‘돌고돌고 돌아’ 기금운용 전문가… 허공에 날린 15개월

국민연금 CIO선임 배경·과제

수익률 제고·스튜어드십 코드 등 안팎 현안 산적 ‘조직안정이 우선’ CIO에 첫 ‘국민연금 출신’ 매니저

‘자본시장 대통령’으로 불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에 안효준 BNK 금융투자 글로벌 총괄부부장(사장)이 선임됐다. 지난해 7월 강면옥 전 본부장이 돌연 사임한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업계 안팎에선 유력 후보자 3명 중 유일하게 기금운용 경험이 있어 전문성 있는 인물 이 됐다는 평가다.

국민의 노후자금 643조원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은 안 선임 본부장이 CIO의 오랜 공백에 따른 국민연금 수익률 저하, 전문인력 이탈, 스튜어드십 코드 안착 등 산적한 과제를 잘 풀어갈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국민연금공단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새 CIO에 안 사장을 임명했다.

안 본부장은 부산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지난 1988년 서울증권 애널리스트로 금융투자업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대우증권 홍콩지점 주식운용팀장, 호주 ANZ 펀드운용 펀드매니저를 거쳐 교보역사자산운용과 BNK투자증권 및 BNK금융지



제8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에 선임된 안효준(왼쪽)이 지난 8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서 임명장을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주를 이끌었다. 특히 2011~2013년 국민연금에서 해외증권실장과 주식운용실장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

이달 초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이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해외 투자와 기금운용 경험이 있는 안 본부장이 더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IO에 국민연금 출신이 선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안 선임 본부장은 전문성을 갖고 독립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국민연금이 위기 상황에 놓인 상황에서 국내의 자본시장과

국민연금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사가 선임된 만큼 안 본부장이 이른 시일 내에 조직을 안정시키고 연금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현재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수익률 저하, 전문인력 이탈, 독립성 확보, 스튜어드십 코드 안착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바닥을 기고 있는 수익률을 끌어 올리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의 주식·채권·대체투자 수익률 등이 포함된 기금운용 수익률은 평균 1.39%로 지난해 연간 수익률인 7.26%에 크게 못 미친다. 특히 국내 주식 수익률은 지난해 25.88%에 서울에 -6.11%로 급락해 10조원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

글로벌 변동성 확대에 따른 증시 부진이 수익률 하락 등 시장이 좋지 않았다지만 목표수익률에도 0.69%포인트 못 미쳤다. CIO 자리가 장기간 공석으로 방치되면서 포트폴리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기존 예상보다 3년이나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한 만큼 안 본부장은 다양한 투자처 변화로 수익률 제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안 본부장은 취임사에서 “국내의 시장 변화를 살펴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굴하는 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문성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것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한 지난해 2월부터 핵심 인력들이 국민연금행을 꺼리고, 내부 전문가들의 퇴사 행렬도 줄을 잇고 있다. 지난 9월까지 퇴사한 기금운용직은 총 41명에 달한다. 안 본부장은 “직원들과 스킨십을 늘려 조직을 하루빨리 안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국민연금이 지난 7월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안착시켜야 하는 중책도 맡았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중직

진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동 지침을 의미한다.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제고하고 동시에 기업 총수의 전횡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안 본부장이 CIO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의식한 듯 김성주 이사장은 임명식에서 “‘삼성합병’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연금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간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이 정상화돼야 한다”며 “운용 수익률은 인력과 시스템에 달린 만큼 안 CIO가 리더십을 발휘해 조직을 하루빨리 추스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CIO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수익률을 최우선에 두고 조직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여건이 쉽지 않다”며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까지 실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뒷단에서 CIO가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coul.co.kr

재해위험지역 정비 생활권별 통합 추진

행안부, 내년 종합정비 시범사업

여러 부처가 각각 해왔던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생활권별로 통합돼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부처별 단위 사업 위주로 진행되던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지역단위 생활권 중심으로 개선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내년부터 시범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저류지나 펌프장 관련 사업은 행안부가, 하수도는 환경부가, 하천은 국토부가 각각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는 방식으로 정비해왔다면 앞으로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통합해 예산도 한꺼번에 확보하고 설계도 통합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기존 단위사업별 공사를 통합해 같은 시기에 공사를 하게 되는 만큼 계속되는 공사로 지역주민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것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통합실제로 시설별 규모나 용량을 종합 검토하는 만큼 과다·중복시설을 최소화하고 일괄 공사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우선 전북 임실과 경북 영덕, 충남 예산, 경남 합천, 전남 나주를 시범 지역으로 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상습가뭄해제지구’ 유형을 추가해 급수 지원이나 저수지 준설 같은 응급대책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가뭄 해소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SKT-삼성서울병원 ‘유전체 분석’ 맞손

분석시간 ‘10분의 1’ 수준 단축
운영비용 최대 90%까지 절감

SK텔레콤은 삼성서울병원과 ‘유전체 분석 효율화를 위한 지능형 솔루션 개발’ 추진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SK텔레콤은 머신러닝·압축저장기술 등 AI(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삼성서울병원의 유전체 진단 및 분석에 활용되는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이 삼성서울병원에 제공하는 AI유전체 분석 솔루션은 SK텔레콤의 직원들이 사내벤처프로그램 ‘스타트넷’을 통해 자발적으로 제안해 사업화가 결정된 첫 사례다.

삼성서울병원은 이를 통해 환자들의 유전체 데이터 분석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의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하면 유전체 분석에 드는 시간을 지금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분석 과정에서 DNA 변이, 염기서열정보, 질병정의



SK텔레콤 장홍성 IoT/데이터 사업부 데이터 유닛장(왼쪽), 삼성서울병원 박용양 삼성유전체연구소장이 지능형 솔루션 개발 관련 업무협약 체결 이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K텔레콤

보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연산 작업을 반복하게 되는데, 머신러닝 기술이 소요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기 때문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압축저장기술도 유전체 분석 시간과 비용을 줄여준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30억쌍의 유전체를 분석할 때 50GB에서 900GB에 달하는 방대한 데이터가 발생한다. SK텔레콤의 압축저장기술을 활용하면 병원이나 연구기관이 엄청난 용량의 데이터 저장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고 데이터 전송 시간도 축소돼 운영 비용을 최대 90%까지 절감할 수 있다.

장홍성 SK텔레콤 IoT·데이터 사업부 데이터 유닛장은 “SK텔레콤이 보유한 머신러닝 및 대용량 데이터 처리 역량을 의료산업에 적용해 혁신을 이뤄낸 사례”라며 “향후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의료기관들이 대용량의 유전체 데이터를 효율적이면서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내년 전통시장 예산 5400억원 편성

>> 1면 ‘기업창업에 13조...’서 계속

2002년 대비 4배·올 보다 44% 늘어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총 3조5555억원을 전통시장에 지원했다. 시장경영혁신, 시설현대화, 주차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다.

2002년에 910억원이었던 중기부의 전통시장 지원 예산은 올해 3754억원까지 증가했다. 2002년 대비 약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내년엔 올해보다 44%나 늘어난 539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중기부는 2005년에 전통시장 전체 매출액을 처음으로 조사했다. 당시엔 27조 3000억원이었다. 그런데 가장 최근인

2016년 조사에선 21조8000억원으로 매출액이 크게 감소했다. 3조7000억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지만 오히려 매출은 5조 5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이 기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매출액 추락 수준이 심각하다는 게 윤 의원의 분석이다.

특히 정부의 이같은 ‘통큰 지원’은 대형 유통기업 진출 등에 따른 경쟁 심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 등으로 뒷걸음질치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엔 역부족인 실정이다.

게다가 시설현대화 등의 이유로 투입하는 예산이 오히려 전통시장내 상가의 가치를 올려 임차 상인들의 매출 상승보다 가게를 갖고 있는 건물주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 1328만명… 3.1% ↑

고용보험에 가입한 취업자가 지난달 2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용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에 들어온 취업자가 대폭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고용행정통

계로 9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28만2000명으로, 작년 동월(1287만9000명)보다 40만 3000명(3.1%) 늘었다.

이는 월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폭으로는 2016년 2월(41만9000명)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올해 들어 월별 고용보험

노동부, 월별 증가폭 31개월만에 최대 고용 질 개선… 서비스업증 대폭 증가

피보험자 수는 증가 폭을 점점 확대 이번엔 처음으로 40만명대에 진입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대폭 증가한 것은 지난 7월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 완화 등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잠 못 드는 한국... 수면장애 50만명 시대

침구류·호텔서 슬립테크까지... 연간 2조 '꿀잠시장'

(IoT 도입한 숙면제품)

위라벨 확산에 '숙면' 욕구 커져
상품 다양화... 극장 등 범위 확대

양질의 수면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가 커지면서 '잠'도 하나의 상품이 됐다. 국내 '슬립노믹스'(Sleeponomics, 숙면 경제) 규모는 약 2조원대. 숙면을 위해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 늘면서 관련 산업에 뛰어드는 기업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7월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24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18개 가운데서도 최하위로 분류된다.

수면 장애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수면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2007년 18만 9045명에서 2016년 49만 4942명으로 늘었다. 10년 새 2.6배 증가한 것이다. '잠 못 드는 한국'의 현실이다.

잠을 위해 과감히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데엔 '위라벨' 문화의 확산, 주 52시간제 도입 등이 영향을 미쳤다. 미국 등 전 세계에서 성행한 수면 산업이 최근들어 한국에서도 빠르게 몸집을 불



글래드호텔의 '글래드 꿀잠' 패키지.

/글래드호텔

린 배경이다. 일과 삶을 구분하고,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국내 수면 산업도 호황에 접어들고 있다.

수면을 돕는 보조 장치나 식품, 침구류 등이 출시되는 한편, 호텔, 극장, 카페 등 업계에서는 수면을 겨냥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ICT, IoT와 같은 첨단 기술을 도입한 '슬립테크'(Sleep Tech) 제품들도 일상으로 침투할 준비를 마쳤다.

멀티플렉스 CGV는 지난 2016년부터 점심시간을 이용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에스타'(Siesta) 서비스를 운영 중이

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1만 원으로 최대 90분간 낮잠을 즐길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직장인들의 높은 관심을 받으면서 출시 10개월 만에 이용률이 약 65% 증가했다.

도심을 중심으로 늘어난 수면 카페도 인기다. 수면 카페 '미스터힐링'의 경우, 최근 100호점을 개점했을 정도로 성행이다.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저렴한 가격에 피로를 풀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수면 카페를 찾는 직장인들은 점차 늘고 있다.

호텔들도 수면 산업에 뛰어 들었다. 서

울 신라호텔은 고객의 수면 취향, 건강, 체질 등을 고려해 베개를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베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또한 침구류는 호텔에서 자체 개발·제작해 부드러운 촉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은 고객에게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첨부된 안내서와 입욕제 등을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패키지를 선보였다.

글래드호텔은 '글래드 꿀잠' 패키지로 주목 받았다. 글래드 마포를 포함해 5개 전 점에 만나볼 수 있는 이 패키지는 글래드 호텔의 시그니처 패키지로, 객실 1박과 함께 건강한 숙면을 위한 '꿀잠 키트'를 제공한다. 또 저알르기성 베개 등 취향에 따라 베개를 고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국 PCF사의 최고급 침구와 에이스 프리미엄 매트리스를 준비해 숙면의 질을 높였다.

또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파크로쉬 리조트에서는 에이스침대 수면 과학연구소와 협업해 숙암랩(Lab) 프로그램을 진행, 고객의 체압, 척추 등을 측정해 최적의 잠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호응을 얻었다.

뷰티·패션업계도 숙면을 겨냥한 제품

을 잇따라 출시하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자주'(JAJU)는 올해 들어 숙면 관련 상품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만 해도 8종이었던 기능성 베개는 올해 14개로 늘어났고, 소재와 기능은 세분화됐다.

H&B스토어 올리브영은 지난 7월 서울대입구중앙점을 새로 오픈하면서 '숙면존'을 선보였다. '숙면존'은 쿠션, 낮잠용 베개 등 기본 수면용품과 함께 운동기구, 슬리핑 오일, 코밴드 등 건강 관리 상품을 한 데 모은 곳으로, 오픈 후 두 달 만에 전년 대비 관련 용품 매출이 101% 늘어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서울 신사동 닥터자르트 플래그십 스토어에 오픈한 '숙면 연구소'에는 베개 커버, 이불 충전재 등과 함께 양질의 수면에 도움을 주는 정보가 함께 마련돼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숙면과 휴식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이 늘었다"며 "향후 호텔·레저 등 다양한 업계에서 수면 관련 제품 및 콘텐츠를 지속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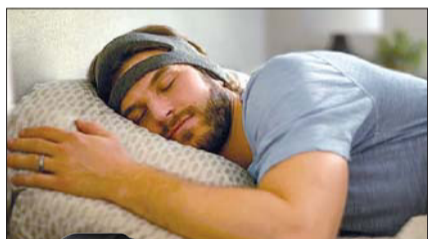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헤드밴드·워치서 공기 모니터까지

슬립테크, 美선 20조 시장

IT 접목해 수면 질 높이는 제품 주목
해외 수면 산업 시장 규모 급성장세

직장인 A씨는 최근 수면장애로 인해 고민이 많다. 오래 잠을 잔다고 생각했는데도 알게 잠을 자기 때문에 일어나도 개운하지는커녕 피로가 더 늘어나는 기분이 든다. 잠들지 못해 뒤척이다 스마트폰을 보면 어느새 시간이 1시간 넘게 훌쩍 지나갔다. 잠이 들어도 코골이 때문에 신경이 쓰이기도 하다. A씨는 "높은 순간 잠이 쏟아질 정도로 질 좋은 수면을 누리기 위해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며 "최근에는 수면 패턴을 분석해주는 IT 기기를 구입했다"고 말했다.



▲ 필립스 '스마트 슬립 헤드밴드' 착용 이미지.
◀ 수면 상태를 측정해 주는 '갤럭시 워치'. /필립스·삼성전자

수면 산업의 일환이다. 최근에는 IT 기술이 발전하며 그 범위가 IT 업계로도 확장됐다. 매년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최대전자기제품 박람회인 'CES'에는 지난해부터 '슬립테크관'이 등장하기도 했다. 전시회에서 사물인터넷(IoT) 기기인 '노키아 슬립'을 선보인 노키아는 최근 예약판매에 돌입하기도 했다. 노키아 슬립은 침대 매트리스 밑에 넣어두면 사용자의 수면 패턴, 심박수, 코골이 등을 분석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필립스가 선보인 '스마트 슬립 헤드밴드'와 '웨이크업 라이트'는 수면의 질을 높이는 제품이다. 스마트 슬립 헤드밴드는 머리에 착용하면 백색소음을 들려줘 깊은 수면을 유도하고 웨이크업 라이트는 햇빛과 같은 파장의 빛을 구현해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도록 도와준다.

미국의 스마트 공기모니터 개발사 어웨어는 지난해 '어웨어' 애플리케이션 내 수면 리포트 기능을 추가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침실 공기가 얼마나 숙면 환경에 적합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각자의 침실 환경에 맞는 개인화된 팁을 받아 건강한 잠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수면을 도와주는 웨어러블 기기도 인기다. 지난 8월 삼성전자가 출시한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 워치'는 수면 상태를 측정해준다. /김민서 기자

맥박·호흡·뒤척임 등 분석 '수면 도우미'

IT 체험기

LG유플러스 'IoT 숙면알리미'

구체적 상태 분석해 습관 체크 도움
앱을 통해 수면 패턴 쉽게 확인 가능

"수면상태 좋음! 79점. 총 100점에서 - 21점이 감점돼 수면점수가 79점입니다." IoT숙면알리미(사진)를 설치한 지난 8일 측정된 기자의 수면점수다. 맥박, 호흡, 뒤척임 등을 분석하기는 기본이다. 갠 상태부터 얇은잠, 중간잠, 깊은잠 등의 구체적인 수면상태가 언제부터 얼마나 지속됐는지도 측정된다. 무호흡 상태가 있었다면, 별도로 알려준다.

LG유플러스가 선보인 IoT숙면알리미는 '수면 비서'로의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 최근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잠 부족에 시달리는 수면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이 수면 도우미로 나서기 시작했다.

IoT숙면알리미는 불면증을 겪고 있거나 밤에 얼마나 깊이 잠드는지 궁금하다면, 매일 수면습관을 체크해보는데 도움이 된다. 생김새는 단순하다. 회색을 띤 밴드형의 모양이다. 수면 상태를 측정하지만, 신체에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설치 방법은 간단하다. 침대 위에 놓고 사용하는 제품이다. 숙면알리미를 누웠을 때 가슴 부위를 지나도록 침대 시트 아래에 올려놓은 후 전원선을 연결하면 된다. 스마트폰에서 'IoT@home'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면, 앱을 통해 수면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IoT숙면알리미를 침대에 설치하고 앱을 켜니 평소 자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었다. 평소 자는 시간을 오후 12시로 설정하니 설정한 시간의 2시간 전부터 4시간 후 사이에 침대에 누우면 자동으로 측정기시



작됐다. 눈에 띄는 부분은 아침 기상 알람이다. 일반 알람과 달리 알람등록을 설정하면, 시간 뿐 아니라 '얇은 잠일 때 깨우기'를 설정할 수 있다. 설정한 시간대에 얇은 잠이 측정되면 대기시간을 지나 알람이 울린다. 얇은 잠일 때 일어나면 깊은 잠에 빠질 때와 달리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다.

잠에서 깨서 측정을 멈추면, 저절로 수면 리포트가 작성된다. 총 수면시간부터

잠들기까지 걸린시간을 기록해주는 것은 기본이다. 수면상태가 그래프로 나타나 평소 본인이 알기 힘든 수면 패턴 체크에 상당히 유용하다. 기자의 경우 수면 상태가 깊은잠 20%, 중간잠 69%, 얇은잠 2%, 갠 상태 9%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점수는 79점. 호흡이 정상보다 빨라진 적이 있다. 자는 동안 움직임이 많았다. 밤늦게 잠자리에 들었다는 점에서 21점이 감점됐다. 밤새 뒤척거리고 늦게 잠든 결과다.

일간, 주간, 월간 리포트까지 기록돼 장기간 사용한다면 본인의 수면패턴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1인용 제품이기 때문에 두 명이상이 함께 자는 침대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IoT숙면알리미는 IoT 기기 세 가지들 선택해 사용하는 '내맘대로 IoT 패키지'(부가세 포함 월정액 1만2100원, 3년 약정 기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김민서 기자 silkni@

제56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 11월 14일~12월 6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 11월 17일~12월 8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요금) : 300,000 → 130,000원
11월 25일(일), 12월 2일(일), 12월4일(화)

김민서

※ 사전 수강 신청 필수 -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

‘총당금’에 울고 웃는 은행권... 3분기 장사 누가 잘했나

금타·모뉴엘 등 ‘집나간 탕아’의 귀환이 최대 변수

(총당금 환입)

금타 3분기 전체 환입 규모 2300억 KB, 환입 여부 따라 ‘깜짝 실적’ 기대

〈금호타이어 익스포저 및 총당금 적립 현황〉

단위: 십억원

구분	2Q18A 익스포저	기적립액	적립률	3Q18F 예상환입액	예상적립률
KB	67	60	90%		
신한	48	34	71%	28	12%
하나	177	109	62%	68	38%
우리	420	120	29%	NA	NA

/자료=각 사·KIS-Line·한국투자증권

은행권 실적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대손총당금이 은행별 실적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9370억원으로 신한금융지주 8600억원을 앞섰다. 하나금융지주와 우리은행 순이익 추정치는 각각 6080억원, 5700억원으로 격차가 400억원도 되지 않는다. IBK 기업은행은 순이익이 456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손총당금은 은행이 빌려준 돈을 못 받을 것에 대비해 일정 부분을 미리 쌓아 두는 돈이다. 자산 건전성 분류에 따라 최소한으로 쌓아야 하는 총당금은 정해져 있지만 그 이상 어떤 비율로 쌓을 지는 은행이 결정한다.

대손총당금은 최소 기준만 충족하면 얼마를 쌓을 지는 은행의 선택이다. 순이익 격차가 크지 않다면 대손총당금을 얼마나 쌓았느냐에 따라 실적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 특히 이번 3분기는 일부 총당금 환입도 발생할 것으로 보여 예측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3분기 실적에 악재로 작용했던 대손총당금이 효자로 탈바꿈했다.

실제 금호타이어 총당금 적립률도 은행마다 다르다. KB가 90%로 가장 보수적으로 총당금을 쌓았고, 신한과 하나는

각각 71%, 62%다. 우리은행의 금호타이어 총당금 적립률은 29%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역원 안팎의 총당금이 환입될 전망이다.

만약 보수적으로 보고 총당금을 많이 쌓은 경우 향후 기업 사정이 좋아지면 은행에 환입액으로 들어와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올 상반기 일부 은행들의 총당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순이익에 플러스가 됐다.

한국투자증권 백두산 연구원은 “신한은행의 경우 금호타이어 총당금 280억원 안팎의 환입이 발생하며, 그룹 대손율도 0.28% 내외로 양호할 것”이라며 “하나은행의 총당금환입은 금호타이어 680억원, 모뉴엘 150억원, 전입은 다이나맥 18억원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3분기에는 금호타이어 관련 총당금이 환입된다. 더블스타로부터 자산을 유지하면서 건전성이 재분류된 결과다. 은행 전체적으로 환입될 금호타이어 총당금 규모는 23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나가 680억원, 신한이 280억원 규모다.

특히 보수적으로 총당금을 쌓았던 KB의 경우 환입 반영 여부에 따라 어닝서프라이즈(깜짝실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사기로 소송 중이었던 모뉴엘에 대해서도 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며 570

대신증권 최정욱 연구원은 “대부분 은행들의 3분기 실적이 추정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호타이어와 모뉴엘 총당금 환입이 크게 발생하는 KB금융의 순이익 컨센서스를 큰 폭 상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mah1@metroseoul.co.kr

“고객과 은행 ‘연결’... 디지털 영토 확장”

나는 뱅커다

⑤ 이창기 농협은행 디지털전략부장

‘NH스마트 고지서’ 130만명 돌파 맞춤 플랫폼으로 수익 다각화 기여



이창기 농협은행 디지털전략부장. /농협은행

“농협은행의 디지털 전략 핵심은 ‘연결(Connectivity)’이다. 과거가 ‘규모의 경제’ 시대였다면 현재는 외부와의 연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달려있는 ‘연결의 경제’ 시대다.”

이창기 농협은행 디지털전략부장은 이처럼 디지털 전략의 핵심을 ‘연결’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장은 “디지털전략부는 단순히 IT(정보기술), 디지털 역량 강화에 몰두하기 보다 고객의 금융 소비동향에 맞게 플랫폼을 통해 고객과 은행을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같은 전략이 빛을 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이 ‘NH스마트 고지서’다. 최근 이용고객 130만명을 돌파한 이 플랫폼은 각종 청구서 및 안내장, 학원비 등을 스마트폰으로 자동알림 받고, 즉시납부가 가능한 앱 서비스다. 현재 농협은행의 스마트고지서 플랫폼은 250만건의 이용자에 고지서를 내보내는 등 은행권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며 핀테크 업체, 통신사 등 이종업계와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고객이 금융에 접근하는 방식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은행점포, ATM(현금자동인출기) 등 오프라인채널에서 어플을 통한 모바일 뱅크로, 이제는 핀테크 기술을 통해 은행권의 플랫폼을 접근하지 않고도 결제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한다.

이 부장은 “플랫폼을 통해 복잡한 청구내용과 납부 과정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며 “은행은 플랫폼을 이용한 납부수수료를 받아 은행의 수익다각화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이용자들은 메신저 어플을 통해 타인에게 송금한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는 플랫폼에 은행계좌 정보만을 입력할 뿐 은행 어플에 직접 접근하지 않는다. 이 같은 금융소비의 변화는 농협은행이 ‘올 커넥티드 인 앤 아웃(All Connected In & Out)’이라는 슬로건을 디지털 전략에 내건 까닭이기도 하다.

농협은행은 현재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는 NH핀테크 혁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에는 11개의 스타트업 기업이 입주해 센터에서 오픈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시험 등 테스트베드를 진행하고 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이 부장은 ‘연결’의 방법을 보다 다양화하고 차별화해 나갈 것을 강조한다. 그는 “고객이 모여드는 타 채널로 농협

저축銀 건전성도 ‘부익부 빈익빈’

고정이하여신 비율 격차 커 중 소형 10%·대형 2% 이하 자산격차·시장 집중 쏠림도

〈대·소형 저축은행 자산별 고정이하여신비율〉

단위:백만원·%

구분	저축은행명	총자산	고정이하 여신비율
소형저축은행	대아상호저축은행	19,546	20.56
	대원상호저축은행	29,201	33.08
	삼보상호저축은행	29,765	12.02
	강원상호저축은행	75,955	3.04
	센트럴저축은행	83,195	0.88
	스타저축은행	106,768	8.04
	머스트삼일저축은행	119,836	3.63
	오성상호저축은행	127,166	1.92
고정이하 여신비율평균			10.39
대형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2,015,698	8.27
	페퍼저축은행	2,084,275	4.47
	애쿠온저축은행	2,218,617	9.95
	JT친애저축은행	2,298,906	2.35
	유진저축은행	2,350,027	2.19
	한국투자저축은행	2,615,071	3.17
	OK저축은행	4,405,703	7.84
	SBI저축은행	6,677,190	5.41
고정이하 여신비율평균			5.45

/자료=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저축은행 업계의 대출 건전성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하위를 기록한 저축은행은 대원·대아 상호저축은행으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은 곳이었다. 대원상호저축은행의 총자산은 292억원에 불과했으며, 대아상호저축은행과 대백저축은행도 각각 195억원, 145억원 수준이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부실 채권이 늘어나 저축은행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소형 저축은행이 실적부진과 부실여신이 확대돼 부실화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전반에 건전성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일부 중소형사는 누적되는 적자와 부실여신 확대 등으로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10% 이상을 넘어서고 있는 것. 반면 건전성 관리에 성공한 중·대형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 이하에 머물고 있어 건전성 측면에서 저축은행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총자산 2조원 이상의 8개 대형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평균 5%대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대·소형저축은행의 자산격차뿐만 아니라 시장 집중도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 소형업체들의 경우는 각종 규제 등으로 영업을 확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원 확보를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9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중인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지난 6월 기준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10%를 넘는 저축은행은 총 8곳으로 나타났다. 대원상호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33.08%로 가장 높았고, 대아상호저축은행(20.56%), 대백저축은행(13.88)이 뒤를 이었다.

애쿠온저축은행(구 HK저축은행)은 9.95%로 집계됐으며 OK 7.84%, 웰컴 8.27%, SBI 5.41%, 페퍼 4.47%, 하나투자 3.17%, JT친애 2.35%, 유진 2.19% 순으로 집계됐다.

KB국민은행 은행권 최초 해외운용‘ETF 신탁’

KB국민은행은 오는 15일 해외증시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는 신탁상품을 은행권 최초로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역외 ETF신탁은 장기 성장이 기대되는 중국시장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안상미 기자

은행 연체율 적신호... 中企·가계대출 연체 ↑

전월 말비 0.05%p ↑... ‘상승세’

신규 연체 발생액이 1조4000억원 규모로 연체채권 정리 규모인 6000억원을 웃돌아 연체채권 잔액이 늘었다.

45%에서 4월 말 1.76%로 상승한 바 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월 말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은행 대출연체율이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중소기업과 가계 신용대출에서 연체율 상승폭이 컸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87%로 전월 말 대비 0.06%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1%로 전월 말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고,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0.49%로 전월 말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61%로 전월 말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해서도 0.11%포인트나 높아졌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1.80%로 전월 말 대비 0.0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65%로 전월 말 대비 0.07%포인트나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은행의 연체율은 전월에 이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상승했다”며 “향후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연체 증가에 대비해 신규연체 발생추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 4월 성동조선해양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3월 말 0.

삼성D는 애플... LGD는 'OLED TV' 덕분에... '好好'

삼성디스플레이

아이폰 신제품에 OLED 공급
3분기 영업이익 9000억 추정

LG디스플레이

6월比 9월 패널가격 소폭 상승
3분기 영업이익 820억 추정



아이폰XS맥스와 XS. /애플

분기 적자를 기록했던 LG디스플레이 또한 3분기 흑자전환이 예상된다. OLED TV 등 프리미엄 모델을 중심으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했다는 평가다.

우선 삼성디스플레이는 애플의 프리미엄 신제품 모델 아이폰XS와 아이폰XS에 플렉시블 OLED를 공급, 지난 5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했다. 아이폰X



LG디스플레이의 75인치 투명 플렉서블 OLED. /LG디스플레이

R은 보급형으로 LCD가 탑재됐다.

또 플렉시블 OLED보다 가격이 저렴한 리지드 OLED는 공급가격이 하락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보다는 저조한 실적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은 9680억원으로 올해보다 더 많은 수익을 냈었다.

LG디스플레이도 하반기 흑자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

삼성증권은 LG디스플레이의 3분기 매출액 6조1000억원, 영업이익 2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소폭 흑자전환을 기대했다.

장정훈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3분기 면적 출하 증가 증가세는 당초 예상했던

한자리수 중반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블래이드 판기도 모바일용 패널 비중 증가로 인해 전분기 대비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진투자증권은 LG디스플레이의 3분기 영업이익을 820억원으로 내다봤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6월 대비 9월의 패널 가격이 소폭 상승했지만 분기 평균으로 보면 오히려 하락했다"며 "3분기 평균 환율이 2분기 대비 상승했다는 점과 회사측의 원가 개선 및 효율화 노력이 하반기 손익 개선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4분기에는 매출 6조9000억원, 영업이익 400억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OLED TV 패널 출하량은 90만장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3분기에 이어 흑자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임금교섭' 타결

기본급·연한수당·비행수당 등 인상

아시아나항공이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와의 '2018 임금교섭'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달 18일 노사합의로 도출된 '2018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노조원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82.2%로 가결됨에 따라 8일 오후조인식을 갖고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이하 조종사노조)와의 '2018 임금교섭'을 마무리 지었다.

조종사노조와의 2018 임금교섭은 지난 8월 첫 교섭을 실시한 이래 총 7차례 이뤄졌으며 ▲기본급 인상 ▲연한수당 인상 ▲중·소형기 기장 비행수당 단가 인상 ▲화물기 비행수당 단가 인상 등을 포함했다.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타운 본사에서 실시된 '2018 임금교섭' 조인식에는 아시아나항공 김이배 경영관리본부장과 조종사노조 김영곤 위원장이 참석해 합의서에 서명하였으며, 향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8일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타운 본사에서 실시된 '2018 임금교섭' 조인식에서 아시아나항공 김이배 경영관리본부장(왼쪽)과 조종사노조 김영곤 위원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펼쳐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날 조인식에 참석한 김이배 경영관리본부장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사가 마음을 모았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964@

"단말기 100만원... 가계통신비 인하돼야"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 출고가 100만 원을 뛰어넘는 등 단말기 가격 100만원 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출시된 갤럭시S5(16~32G)가 87만원이 채 되지 않았던 것에 비해 올해 출시된 갤럭시 S9(64G)는 96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의 아이폰은 2014년 출시된 아이폰6(16G) 가격이 약 79만원이었던 반면,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8(64G)는 약 95만원이었고, 아이폰X(256G)는 160만원에 육박했다.

신용현 의원은 "2017년 월평균 가계 지출 통신항목 비교 결과를 보면 가계통신비 중 단말기 등 통신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이상이다"며 "가계통신비

<최근 5년간 아이폰 출고가 비교>

모델명	출시시기	가격
아이폰6 (16G)	2014년 10월	789,800원
아이폰6S (16G)	2015년 10월	869,000원
아이폰7 (32G)	2016년 10월	869,000원
아이폰8 (64G)	2017년 11월	946,000원
아이폰X (64G)	2017년 11월	1,360,700원
아이폰X (256G)	2017년 11월	1,557,600원

인하정책은 통신 서비스 요금 인하에만 초점을 맞춰왔지만 상승하는 단말기 가격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통신비 인하나 정부의 국정 과제로 포함된 것은 통신장비 및 통신서비스가 국민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라며 "분리공시제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때"라고 밝혔다.

/김나연 기자

SAMSUNG AI토론회 직원 4만명 참가 '열기'

사내 집단지성 시스템 '모자이크' 빅스비 지도 등 역량 강화에 동참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임직원들도 AI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동참하고 있다.

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사내 집단지성 시스템 '모자이크'에서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줄 수 있는 생활 속 AI 시나리오를 토론했다'란 주제로 임직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는 대토론회를 펼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작해 오는 12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김현석 삼성전자 CE 부문장과 고동진 IM 부문장이 함께 토론회를 이끌며 임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했기도 했다.

두 부문장은 1일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경쟁이 치열한 경영 환경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경험과 가치가 무엇인지 구기 기울이며 3~5년 후 미래를 그려보아야 한다"며 "다가오는 초(超)연결 시대, 삼성의 제품과 서비스에 AI 기술을 적용해 사람들이 더욱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가진 역량을 모두 활용한다면 우리만의 차별화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혁신 아이디어를 발견하면 실행까지 즉시 연계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빅스비를 더 강하고 똑똑하게 만드는 방법은?", "집에 전등이 고장났는데, 나보다 내 취향을 더 잘 아는 너, 어떻게 바꿔줄래?" 등의 아이디어를 시나리오 형식으로 자유롭게 모자이크에 올리면 된다. 아이디어가 올라오



지난달 12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 AI 포럼 2018'에서 삼성전자 대표이사 겸 종합기술원장인 김기남 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

면 임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추천해 선호도를 표시하고, 집단지성으로 아이디어를 함께 발전시켜 나간다.

8일까지 4만2000명 이상의 임직원이 대토론회에 참여해 550여건의 시나리오 제안과 댓글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 제안된 시나리오는 ▲사용자가 어떤 대화를 주로 하는지 빅스비가 대화 패턴을 분석해 긍정적인 화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소파에서 일어나 냉장고로 다가가기 냉장고 문이 자동으로 열림-뇌파로 사물 조정 등이다.

삼성전자 집단지성사무국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아이디어와 시나리오들을 과제로 도출해 11월 중에 임직원들과 공유하고, 실행이 가능한 과제들은 상품화까지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글로벌 AI 연구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3일 유럽과 북미로 해외 출장을 떠났다. 이번 출장은 이 부회장이 지난 2월 구속에서 풀려난 이후 6번째 출장으로 유럽과 북미를 돌며 AI 등 신사업

발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한국 AI 총괄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올해 1월 미국 실리콘밸리, 5월 영국 케임브리지·캐나다 토론토·러시아 모스크바에 이어 9월에는 미국 뉴욕에 AI 연구센터를 설립했다.

지난 9월에는 서울에서 AI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을 초청해 AI 관련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는 '삼성 AI 포럼 2018'도 개최했다.

AI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세바스찬 승 교수와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다니엘 리 교수를 영입한 것도 AI 연구 역량 강화의 일환이다.

앞으로도 AI 역량 강화는 계속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AI를 4대 미래 성장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연구 역량을 대폭 강화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리더십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한국 AI 총괄센터를 중심으로 글로벌 연구 거점에 약 1000명의 AI 선행 연구개발 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삼성 스마트TV

삼성페이 간편결제 탑재

삼성전자는 스마트 TV 내에 탑재된 T-커머스 전용 결제 시스템 '삼성 체크아웃'에 삼성페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삼성 체크아웃은 2015년에 삼성전자가 자사 스마트 TV 내에 처음 도입한 TV 전용 전자상거래 서비스(T-커머스)다. TV를 통해 각종 디지털 콘텐츠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삼성전자는 이번 삼성 체크아웃의 삼성페이 도입을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손쉽게 TV 내 결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

록 했다.

기존 삼성페이 사용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카드 등록 절차 없이 스마트 TV 내 삼성 어카운트 로그인만으로 즉시 이용 가능하다. 디지털 콘텐츠 구매 시 결제 수단 선택 단계에서 삼성페이를 선택한 후, 스마트폰에서 인증만 하면 바로 결제가 완료된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세계 첫 AMG 전용트랙... 4.3km 맘껏 밟아 고성능 만끽

Q 르포 | 벤츠, 용인 'AMG 드라이빙 아카데미' 가보니

獨 본사 개발 드라이빙 교육 제공
경험·전문·여성, 세가지 프로그램
참가비 10% 어린이 교통안전에 쓰여

“한국 자동차 애호가들을 위해 아카데미를 개소해서 기쁘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사장은 지난 8일 용인 AMG 스피드웨이에서 'AMG 드라이빙 아카데미' 개설을 발표하고 이 같이 말했다.

AMG 스피드웨이는 벤츠가 지난 5월 개장한 세계 최초의 AMG 브랜드 전용 트랙이다. 벤츠 코리아는 이번 행사에서 완성된 AMG 스피드웨이 및 부대시설을 소개하고 AMG 차량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9일 벤츠코리아에 따르면 AMG 드라이빙 아카데미는 독일 AMG 본사에서 개

발된 드라이빙 교육 프로그램이다. AMG 본사에서 인증 받은 전문 강사진이 초급부터 고급 수준까지 단계별 맞춤 교육을 제공한다. 신청은 누구나 가능하며 올 11월부터 AMG 스피드웨이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첫 선을 보일 프로그램은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경험하는데 중점을 둔 'AMG 퍼포먼스'와 보다 전문적인 드라이빙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AMG 어드밴스드' 그리고 여성만을 위한 'AMG 포 레이디스' 세 가지다. AMG 드라이빙 아카데미 프로그램별 참가비의 10%는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의 기금으로 적립되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쓰여 질 예정이다.

발표에 앞서 용인 AMG 스피드웨이에서 킷을 벤츠 AMG E63 차종으로 직접 체험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대표이사 사장이 메르세데스-AMG GT 4-도어 쿠페 및 메르세데스-AMG E63 4MATIC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AMG E63 4MATIC(이하 AMG E63)은 벤츠코리아가 지난 1월 국내에 출시한 베스트셀링카 10세대 E클래스의 최고 성능 모델이다. 기자가 용인에서 만난 차

종은 럭셔리 고성능 차라는 명성에 걸맞게 내부 인테리어가 화려했다.

기어를 옮기고 가속 페달을 밟자 AMG E63의 강력한 배기음에 전율이 느껴졌

다. 최고 출력 571마력과 76.5kg·m의 강력한 토크, 단 3.5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질주할 수 있는 가속력을 자랑했다.

AMG서킷은 4.3km 길이의 트랙에서 AMG 모델의 기술과 주행성능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다.

한편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벤츠 코리아 사장은 판매량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실라키스 사장은 디젤 차 인증 과정에서 물량 부족을 겪으면서 판매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줄곧 1위를 차지했던 벤츠는 지난달 4위로 내려섰다. 지난 9월 벤츠의 국내 판매량은 1943대로 2013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월 판매량이 2000대 이하로 감소했다.

실라키스 사장은 “배기가스 인증 문제는 벤츠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며 “현재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연말에는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관람객이 가로수길에 마련된 'LG V40 씽큐 스퀘어'에서 여권 사진 인화서비스를 체험하고 있다. /LG전자

“가로수길서 'LG V40 씽큐' 체험하세요”

LG전자 28일까지 체험존 운영

LG전자가 전략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V40 씽큐(ThinQ)'의 펜타(5개) 카메라 성능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LG전자는 8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LG V40 씽큐 체험존 'LG V40 씽큐 스퀘어'를 열었다. 이 체험존은 28일까지 3주간 운영된다. LG전자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체험존을 총 35개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LG V40 씽큐 스퀘어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펜타 카메라로 전에 없던 새로운 촬영 경험을 고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고

록 한다는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LG전자는 업그레이드된 카메라 성능을 활용한 이벤트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가로수길 체험존을 방문한 모든 고객에게 LG V40 씽큐로 여권 및 증명사진 인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유튜브 1인 크리에이터들이 LG V40 씽큐를 활용해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오픈 스튜디오도 운영한다. 촬영 장비나 장소가 없어 고품질의 콘텐츠를 만들지 못했던 1인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LG V40 씽큐 스퀘어에서 상담 후 예약이 가능하다.

이 밖에 ▲크리에이터 전문 강사들의 콘텐츠 제작 강의 ▲UX 체험 투어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즐길 거리도 마련했다. /구서윤기자

현대상선, 굿네이버스 구호물품 운송 후원

베트남에 40피트 컨테이너 2대분량

현대상선이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굿네이버스가 베트남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구호물품의 해상운송을 후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운송되는 구호물품은 40피트 컨테이너 2대 분량의 의류와 모자, 양말, 신발 등으로 구성됐다.

9일 인천항에서 선적된 구호물품은 현대상선이 운영 중인 'KVX(Korea Vietnam Express)' 서비스를 통해 18일 베트남 호치민항에 도착 후 내륙운송을 거쳐 안전성과 하우장성 지역주민들에게 전달



굿네이버스 직원들이 9일 현대상선 선박에 선적하기 위해 구호물품을 컨테이너에 싣고 있다. /현대상선

될 예정이다.

현대상선은 앞으로도 굿네이버스의 해외 구호물품 운송 시, 자사 컨테이너선을 활용해 운송 및 제반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연우기자

KT, 스마트빌딩 솔루션 세계에 첫선

네덜란드 SDN NFV 월드콩그레스
차세대 광케이블 가상화 기술 등 소개

KT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SDN NFV 월드콩그레스에서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 기반의 스마트빌딩 네트워크 솔루션과 차세대 광케이블(FTTH) 기술을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KT는 행사기간 동안 전시부스를 차리고 미래 스마트빌딩 구현을 위해 가상화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어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솔루션들을 소개한다. ▲모든 구간에서 광케이블과 무선으로 연결해 품질을 보장하는 '올 옵티컬 앤 올 와이어리스 통합배선' ▲SDN 기반으로 손쉽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통합 자동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와이어리스 빌딩 네트워크 솔루션' ▲액세스 내내 광케이블(FTTH) 전송기술을 SDN 기반으로 가상화 및 통합 제어하는 '차세대 광케이블(FTTH) 가상화 기술'이다.



네덜란드 헤이그 SDN NFV 월드 콩그레스 행사장에서 KT 직원들이 관람객들에게 솔루션을 소개하고 있다. /KT

KT 가상화 솔루션을 사용하면 스마트 빌딩 인프라를 빠르고 쉽게 제공할 수 있다. SDN 솔루션은 소프트웨어 기반 인프라 솔루션이기 때문에 해외수출이 가능하며 다양한 산업에도 제약 없이 활용 가능하다.

KT는 이번에 전시되는 가상화 기반 스마트빌딩 네트워크 솔루션을 연내 대구 시 테크노파크와 대구 콘서트홀에 적용

할 예정이다. 2017년에 이어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주관하는 지능형 초연결망 선도사업 사업자로 선정되어 진행하는 것이다. 지능형 초연결망 선도 사업은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5G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네트워크들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LG CNS, IT업계 최초 지능형 ERP플랫폼 출시

외산 점령 국내 ERP시장 도전장

LG CNS가 IT업계 최초로 지능형 ERP 플랫폼 'LG CNS EAP(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플랫폼)'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LG CNS는 ERP 플랫폼 출시를 통해 외산 패키지가 점령한 국내 ERP 시장에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IT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2018년 국내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장은 2800억원 규모로 그 중 외산 패키지가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LG CNS EAP는 패키지 도입 방식 탈피해 핵심기능 중심으로 맞춤형 구축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주로 ERP 솔루션을 패키지로 구매해야 했다. 그러나 패키지 방식은 투자비용 대

비 기능 활용도가 낮았다. LG CNS EAP는 고객 요청에 따른 추가 기능을 선택적으로 구축할 수 있어 기존 비용 대비 약 30%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복잡한 업무절차를 대폭 줄이고 간단한 화면 구성으로 업무 처리속도도 최대 80%까지 개선할 수 있다. 이미 LG CNS는 올해 초부터 10년 이상 쓰던 외산 ERP 대신 자체 개발한 LG CNS EAP를 전면 도입하고 일부 고객사에도 EAP를 적용해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 검증은 완료했다.

예를 들어 재무 분야에서는 전사 판매 관리비 배부 체계 간소화를 통해 2시간 이상 걸리던 수백만 건의 정보처리를 10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인사 분야에서 기존에 2~3단계로 나뉘어 있던 급여 계산 및 전표생성 작업을 하나의 작업으

로 통합하여 기존 대비 50%의 급여 작업 시간을 단축했다. 구매 분야에서도 EAP의 간소화된 업무 프로세스 설계를 통해 구매 발주, 주문 입력, 재고 조회 등 처리 시간을 기존 대비 절반 이상으로 단축했다.

LG CNS EAP는 합리적 라이선스 정책으로 고객 비용도 대폭 절감한다. 기존 외산 솔루션의 경우 매년 사용자를 재산정해 추가 라이선스 비용을 요구했다면, LG CNS EAP는 최초 도입한 임직원 규모 기준으로 라이선스 비용을 산정한다. 라이선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효율도 외산 대비 절반수준으로 책정해 구축 비용과 초기 라이선스 비용,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한 총 운영비용은 기존 대비 절반 수준에서 최대 70%까지 절감 가능하다. /구서윤기자 yuni2514@



SK하이닉스 반도체는 세계일주 중!

사람이 사는 곳에는 기술이 필요하고
그 기술 안에는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는 전세계 220여 개국에서
언제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안에서 밖을 만들다



원자재펀드 수익률 반짝 반등하자... 환매나선 투자자

최근 1개월 수익률 3.64% 집계
주식투자펀드는 4.95% 상승세
평가차익 노리는 투자자들 발 빼

원유, 귀금속 등 주요 원자재에 투자하는 펀드가 반짝 성적을 내자 자금을 빼내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달러 강세가 달러화로 거래되는 원자재 가격의 상대적 하락을 부추길 것이라 분석과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글로벌 경제 성장세에 대한 물음표가 커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9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원자재 펀드의 최근 1개월 수익률은 3.64%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원자재 관련 기업 주식에 투자한 펀드 수익률도 4.95%로 반짝 상승했다.

연초 이후 -14.92%로 부진한 금펀드도 최근 1개월 동안 0.64%의 수익을 내고

(주요원자재 관련 펀드 수익률(5일 기준)) (단위: 억원, %)

테마	1개월	3개월	6개월	연초이후	1년	2년	3년	5년	
농산물펀드	수익률	-0.23	-0.37	-9.29	-6.56	-8.77	-15.96	-17.77	-33.45
	자금유출입	12	98	41	-78	-198	-194	-116	68
원자재펀드	수익률	3.64	-2.1	-1.31	-2.39	1.64	2.56	12.22	-20.21
	자금유출입	-132	-466	-1,887	-3,789	-5,630	-4,045	-3,945	-654
금펀드	수익률	0.64	-8.8	-12.94	-14.92	-15.5	-22.55	-0.91	-21.69
	자금유출입	41	207	-47	-358	-248	1,346	1,329	1,930
천연자원펀드	수익률	5.61	0.52	5.5	3.88	11.37	15.25	22.08	-22.09
	자금유출입	-195	-764	-1,872	-3,350	-5,176	-5,132	-5,044	-2,282
원자재(주식)	수익률	4.95	-4.06	-0.97	-6.25	-1.94	4.67	35.01	-17.58
	자금유출입	-85	-348	-1,018	-1,272	-1,789	237	-201	-2,775

(자료=에프앤가이드)

있고, 천연자원펀드도 5.61%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

하지만 손절매와 평가차익을 내려는 투자자는 발을 빼고 있다.

원자재 펀드에서는 한달새 132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연초 이후로 이를 확대하면 3789억원의 자금이 이탈했다.

천연자원 펀드도 한달 동안 195억원의

자금이 이탈했다. 연초 이후로는 3350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원자재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도 연초 이후 1272억원, 한달새 85억원의 자금이 이탈했다.

국제 유가가 1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 전망에도 원유펀드의 자금은 빠져나가고 있다. '미래에셋TIGER원유선물특

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원유-파생형]'에서는 연초 이후 1835억원의 자금이 유출됐다. '삼성WTI원유특별자산투자신탁 1[WTI원유-파생형]'에서도 607억원이 환매됐다.

'삼성KODEX WTI원유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원유-파생형](H)'에는 유일하게 최근 3개월 사이에 25억원이 순유입됐다.

그나마 금펀드가 한달 동안 0.64%의 수익률을 기록하자 41억원 가량의 돈이 유입됐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글로벌 경기 확장세가 누그러지면 원자재 수요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건도 우호적이지 않다.

원자재 펀드 수익률은 미·중 무역전쟁 여파를 고스란히 받는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 5일 기준 달러인덱스는 95.62에 달하고 있다.

미국은 4차 관세 부과 절차를 진행중이고, 중국과의 분쟁 영역을 정치, 군사, 사회 분야로 확장할 조짐이다.

달러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달러가 연중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다"면서 "이탈리아 재정안정 문제가 부각되면서 상승 반전한 달러는 미국 채권 금리 급등에 따른 불안 심기가 달러 강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제금융센터 김용준 연구원은 "10월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11월 미 중간선거 등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 투기거래자들의 거래 동향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나해 하반기 달러 매수 포지션 청산 과정에서 달러 급락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지난 7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항견학에 참가한 인천수어통역센터 청각장애인들이 안내데스크에 설치된 문자안내방송시스템, 화상전화기, 하이링루프 등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받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공, 청각장애인 초청 공항견학

셀프체크인·안내로봇 이용 등 체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7일 인천수어통역센터 청각장애인을 제2여객터미널에 초청해 맞춤형 공항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견학 프로그램은 공공자원을 국민에게 개방하고 교통약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편리한 공항 이용을 돕기 위한 인천공항공사의 사회적 가치실현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청각장애인 등 30여명은 제2여객터미널 5층 홍보전망대를 포함해 여객의 입국과 출국 동선을 따라 이동하며 셀프체크인 체험, 정부행정종합센터 견학, 공항 곳곳의 예술작품 감상, 안내로봇 이용

체험 등을 했다. 특히 문자안내방송시스템, 화상전화기, 하이링루프 등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체험해보는 맞춤형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문자안내방송시스템은 터미널 내 음성 안내방송을 듣기 힘든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안내 문구를 시각 형식으로 표출해주는 시스템이다.

안내데스크를 방문해 문자안내를 요청하면 최근에 송출되었던 안내방송을 모니터 상에 자막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안내데스크에 설치된 화상전화기를 사용하면 수어통역사가 화상통화로 연결돼 청각장애인 사용자와 안내직원 사이에서 통역해준다. (채신화 기자)

재감사에 20억... 소명절차서 비용 수억 추가

>> 1면 '간간해진 감사...'서 계속

이번 상장폐지 대상이던 상장사 IR 담당자는 "회계법인은 올해 처음 도입된 디지털포렌식(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정보수집)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수 억원의 비용을 청구하고, 회사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모두 가져갔다"면서 "회사가 하드디스크까지 내놓은 것은 그만큼 상장 유지에 대한 의지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감사 비용은 20억원이 넘게 들었고, 앞으로 법원 소명 절차를 거치면서 수 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

◆주주 "결국 부담은 서민 주주만"

또 이들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들의 반발도 거센 상태다. 특히 모다, 에프티앤이 등의 경우 정리매매 기간을 1거래일 앞두고 법원의 인용판결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절차가 보류됐는데 이미 정리매매를 통해 '손절매'한 주주도 다수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비판의 글이 다수 올라온 상태다. 9일 올라온 국민청원에는 "수 십 억원씩 거액을 들여 강제지정회계를 받게 하고 트집 잡고 시비 걸어서 상장 폐지시키는 정부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다. (손영지 기자 sonumj301@

연내 2.1만 가구 붓물... 지방 '큰 장' 선다

부산·대구·대전 등 5대 광역시
전년비 38% ↑ ... 부산 1.1만 가구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등 지방 5대 광역시에서 분양 큰 장이 열린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 지역인 만큼 청약 인기가 높을 전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부터 연말까지 지방 5대 광역시 일반분양 공급예정 물량은 총 2만 1274가구(임대·조합아파트 제외)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공급된 1만 5431가구에 비해 약 37.8% 증가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부산광역시에서 가장 많은 1만 1019가구가 분양된다. 이어 ▲대구광역시 5651가구 ▲광주광역시 2519가구 ▲대전광역시 1149가구 ▲울산광역시 936가구 순이다.

업계는 4분기에도 이들 지역의 청약 인기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분양단지 중 청약경쟁률 상위 5곳은 모두 지방 5대 광역시 내 분양단지가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지난 1월 청약 받은 'e편한세상 남산'이 평균 346.51대 1의 경쟁률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e편한세상 둔산1단지(321.36대 1)', '남산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284.19대 1)',

(올해 청약경쟁률 상위 5위 단지)

순위	분양시기	단지명	지역	청약경쟁률
1	2018.01	e편한세상남산	대구광역시 중구	346.51
2	2018.01	e편한세상둔산(1단지)	대전광역시 서구	321.36
3	2018.08	남산롯데캐슬센트럴스카이	대구광역시 중구	284.19
4	2018.07	갑천트리폴시(3BL)	대전광역시 서구	263.62
5	2018.01	e편한세상둔산(2단지)	대전광역시 서구	241.91

(자료=금융결제원)

갑천 트리폴시 3블록(263.62대 1)', 'e편한세상 둔산2단지(241.91대 1)'순으로 나타났다.

10~12월에도 지방 5대 광역시 알짜 입지에서 유망단지가 나와 눈길이 쏠린다.

대구에서는 코오롱글로벌이 10월 수성구 신대동 예전 이마트 부지에 주거용 오피스텔 단지 '시지 코오롱하늘채 스카이뷰'를 분양한다. 최고 46층의 초고층 랜드마크로 조성되며, 686실 모두 전용 84㎡로 구성된다.

GS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12월 대구 중구 남산 4-4지구에 '남산4-4지구 자이 하늘채(가칭)'을 선보인다. 1368가구(전용 39~84㎡) 규모로 이 중 963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부산에서는 ㈜일동이 10월 동구 좌천동 일대에 '부산항 일동 마라주 더오션'을 공급한다. 이 중 아파트는 546가구(59~84㎡) 가운데 513가구가 일반 분양되며, 오피스텔은 68실(전용 82~83㎡)로 구성된다.

같은 달 대우건설은 부산 영도구 동삼동 하리도시개발구역에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아파트는 846가구(전용 84~115㎡), 레지던스는 160실(전용 21~32㎡)로 구성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1월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서 '힐스테이트 명륜 2차'를 공급한다. 지난 2016년 분양한 힐스테이트 명륜의 후속단지로, 87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광주에서는 중흥건설이 10월 북구 임동2구역에 재개발하는 '임동2구역 중흥S-클래스'를 공급한다. 총 658가구 규모로 이 중 440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또 반도건설은 11월 남구 월산1구역을 재개발하는 '광주 월산 반도유보라(가칭)'를 분양한다. 889가구 규모로 이 중 631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울산에서는 동원개발이 중구 우정혁신도시 3-3블록을 개발해 36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선보인다. 대전에서는 한화건설이 12월 유성구 가동동 일대 대전 매봉공원을 개발해 434가구 규모의 '꿈에그린' 아파트를 공급한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인천 검단신도시 6000여 가구 공급

하반기 분양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이달부터 연말까지 6000여가구가 공급된다. 검단신도시는 수 년째 표류를 거듭해오던 곳으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중심상업지구가 위치한 1단계 분양과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 신설역(2024년 예정)으로 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다더아파트에 따르면 연말까지 인천 검단신도시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5곳, 5943가구다. 업체별로는 ▲금호건설 '검단금호어울림 센트럴(1452가구)' ▲우

미건설(1257가구) ▲호반건설(1168가구) ▲대방건설(1281가구) ▲유승종합건설(938가구) 등이다.

검단신도시는 전체 7만 4735가구 규모로 수도권 내 마지막 2기신도시인 일산신도시이다. 인천 서북부지역에는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LH가 인천 서구 당하마전·불로·원당동에서 1118만 1000㎡, 인구 18만여명, 7만 4735가구로 조성 중이다.

지리적으로 김포한강신도시보다 서울과 더 인접해 있으며 청라경제자유구역~김포한강신도시~서울을 잇는 수도권 서

북부의 대표 거점도시다. 서울 마곡지구와 직선거리로 약 7km, 김포한강로, 서울 외곽순환도로 등이 인접해 있고 마곡산 입단까지 차량으로 30여분 거리다. 특히 검단신도시는 수도권 2기신도시의 마지막이자 비규제지역이라서 수요자의 관심이 더 높을 전망이다.

올해 분양하는 단지로 유승종합건설은 이달 검단신도시 AA4블록에서 '검단신도시 유승한내들 에듀파크' 84~107㎡ 938가구를 분양한다. 단지 인근에 유치원, 초·중·고교가 계획돼 있다. 호반건설은 이달 검단신도시 AB15-2블록에서 '검단신도시 호반베르디움' 72~84㎡, 1168가구를 분양한다. (이규성 기자 peace@

“난민? 그냥 싫어” 70만 청원… 동정심 결여 ‘한국의 민낯’

비정상 한국경제 ‘아노말리’ 증후군

⑩ 제노포비아

치안 악화·경제 손실 주장하며 혐오 범죄 피해 두려움, 합리적 근거 없어 생계비 436명 지원… 월평균 43만원

#. 지난달 16일 서울 도심에서 ‘난민법, 무사증폐지 촉구 집회’가 열렸다. 난민 수용 반대 단체인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가짜 난민을 즉각 추방하라”, “국민이 먼저다. 난민법을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 지난 7월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 허가 폐지 등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71만명이 넘는 사람이 지지를 표했다. 이로써 난민 수용 반대 청원은 역대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이 됐다.

대한민국이 난민 혐오로 들끓고 있다. 난민 반대 측은 치안 악화, 경제적 손실 등을 이유로 내전을 피해 한국에 온 사람들을 내쫓으라고 주장한다. 반면, 전문가들은 근거 없는 혐오를 버리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난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동정심이 결여된 한국인에게 묻는다. 북한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른 나라들이 한국 난민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라 기대하는가” 뉴욕 타임스는 지난 7월 사설을 통해 제주 예멘 난민으로 촉발한 한국인의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증)를 꼬집으며 이같이 일갈했다.

◆“범죄 우려돼”… 내국인 절반 수준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들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난민 상황에 놓인 이집트인들이 난민 혐오에 반대하며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연행뉴스

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반대 측의 주장대로 난민 즉, 외국인의 범죄율이 높을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외국인 범죄의 발생 동향 및 특성’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외국인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는 내국인의 절반 수준이었다.

내국인의 범죄율이 외국인보다 2배 이상 높지만, 난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굵지 않다. 리얼미터가 지난 7월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주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 오차 ±4.4%포인트)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은 53.4%로 ‘찬성한다’(37.4%)보다 16%포인트 앞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예멘 난민 관련 설문 조사를 보면, 난민 수용 거부감에 대한 원인으로는 ‘난민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44.7%로 가장 많았다. ‘종교 및 문

화적 갈등’(21.9%), ‘난민에 의한 자국민 일자리 감소’(15.6%), ‘난민 수용에 따른 세금 지출 문제’(10.7%)가 뒤를 이었다.

난민 찬성 측은 “난민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유럽 주요국 중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독일은 최근 30년 가운데 가장 낮은 범죄율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사람들은 반이슬람 정서를 부추기는 페이크 뉴스에 휘둘러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라며 “난민에 대해 제대로 알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부는 난민심사 진행 상황 등의 정보를 상세히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가 낸 세금이 난민 주머니로?” 난민 반대단체인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난민 신청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지적하며 “가짜난민을 만드는 난민법을 폐



지난달 16일 서울 보신각 맞은편 인도에서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가짜 난민을 추방하라”고 외치고 있다. /뉴스스

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난민법 제4조에 따라 임시비자를 발급받은 난민 신청자는 정부로부터 6개월간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그럼 얼마나 많은 난민이 생계비 지원 혜택을 받았을까.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난민 신청 건수는 총 9942건이다. 이중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121명밖에 되지 않았다.

난민인권센터가 발표한 ‘2018 난민인권센터 통계자료집’을 보면 지난해 생계비 지급대상자 1만3294명 중 3.2%인 436명만이 월평균 약 43만원의 생계비를 지원받았다. 생계비를 지급받은 기간은 평균 3개월이었다.

난민인권센터는 “많은 난민 신청자가 생계비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난민 1만2858명은 한국입국 이후 6개월 동안 그 어떠한 권리도 보

장받지 못한 채 유령처럼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난민 반대여론이 우세하다 하더라도 인권 보호 측면에서 이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유엔난민협약 국으로 종교나 정치적 박해를 피해 온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는 중학생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졌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한국을 떠나야 하는 처지에 놓인 이란 국적의 친구를 위해 같은 반 아이들이 힘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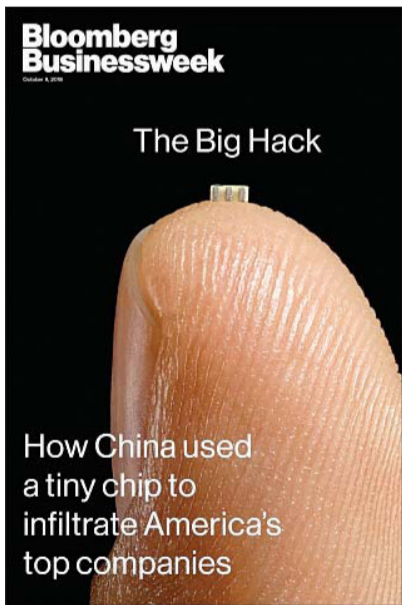
시위에 참여한 아이들은 ‘친구와 함께 공부하고 싶어요’, ‘친구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이란 국적의 친구의 난민 인정을 도와달라고 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중국發 슈퍼마이크로 스파이칩 논란

글로벌 IT업계 보안 ‘경고’… 中 제품 사용 불안감↑

중시, 중국 기업 주가 폭락 등 혼조 지식재산권·기밀 수집 등에 사용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에 보도된 중국 스파이칩.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 홈페이지

지난 주에 터진 중국발 스파이칩 스캔들이 글로벌 IT업계를 동요시키고 있는 가운데 중국 IT제품에 대한 보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당 스캔들의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IT업계에서 중국제품을 안심하고 쓸 수 있을지 의심하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비즈니스위크는 애플과 아마존 웹서비스의 데이터센터 서버에서 중국 정부의 감시용으로 추정되는 좁쌀 크기의 마이크로칩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이 칩은 미국 회사로부터 지식재산권과 거래 기밀을 수집하는 데 사용됐는데 슈퍼 마이크로라는 컴퓨터 하드웨어 제작사에 의해 해당 서버에 부착됐다는 내용이다. 슈퍼 마이크로는 데이터센터 서버를 중국에서 조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도가 나온 직후인 5일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PC 제조사 레노보 주가는 15% 폭락했으며 ZTE도 10.99% 급락했다. 레노보는 5일 성명을 통해 “슈퍼 마이크로는 레노보의 부품공급 업

체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공급사슬 상의 안전 보장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계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4일 연설에서 중국의 보안 기관이 군사 계획을 포함한 미국 기술에 대한 ‘악습이 절도’를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

권 도둑질을 끝낼 때까지 조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과 아마존은 보도가 나온 직후 자체 조사결과 해킹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성명을 냈다. 또한 8일(현지시간) 미국 국토안보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영국 사이버보안센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번 의혹에 언급된 회사들의 성명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화웨이는 8일 이런 보안 문제에 대해 “화웨이는 철저한 사이버 보안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문제 제기 받은 사안은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화웨이는 지난 7월 “한국 정부가 보안 검증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따를 것”이라고 적극 해명해왔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이번 보도가 약 17명의 취재원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다고 설명하며 해당 기사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스캔들의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유독 중국IT제품에 보안성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것도 단순한 실수나 기술부족이 아니라 의도적인 정보유출

을 의심할 정황이 생긴다는 점을 비판했다.

2013년 러시아 국영방송은 중국에서 수출한 일부 다리미에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통신 부품이 들어있고 바이러스와 스파이를 유포한다고 보도했다. 이후 이런 의혹은 중국산 서버, 노트북을 비롯해 전기 주전자나 CCTV까지도 확산됐다.

또한 올해 초 중국이 아프리카연합(AU)을 5년 가까이 삼습 해킹한 사실도 보도됐다. 중국이 2억 달러 자금을 투입해 지은 본사에서 조직의 비밀 자료가 중국 상하이에 있는 서버로 복사된 사실이 적발됐다. 원격 해킹을 위한 백도어와 건물 내부 도청기도 설치됐으며 현지 통신인프라 제공은 화웨이와 ZTE가 담당했다.

업계에서는 ‘이미 사실로 드러난 몇 가지 사건을 보건대 중국산 IT제품에 보안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나서서 보안점검을 받겠다는 회사를 의심하는 건 지나치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중국 제품을 안심하고 쓰기 위해서는 보안에 대한 관련 업체의 확실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세종시

가로수·보도블록·공원 등 시설물 관리 미흡 드러나

보도블록, 놀이터 등 세종시의 시설물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9일 세종시의 가로수, 보도블록, 교차로, 자전거도로, 공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려를 표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를 ‘누구나 살고 싶은 세계모범도시, 행복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갖고 ▲성장동력 다변화 ▲인프라 양적·질적 향상 ▲도시 고령화 등의 과제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 이은권 의원의 주장이다.

이의원에 따르면 54억 원이 투입된 세종시 자전거 도로는 지난 2012년 6월에 준공돼 사용기간이 불과 6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시설물은 녹슬고 쓰레기와 잡초로 뒤덮여 있는 등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세종시 공원의 나무들은 대부분 고사했으며, 살아있는 나무지도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도보통행로의 보도블록 역시 잡초로 뒤덮여 있었다. 놀이터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의원은 “관리는 지자체가 맡고 있다고 하지만 세종시가 진정한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국토부가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中·日·러도 ‘비핵화 분주’... 文 “한반도 새 질서”

김정은 방·시진핑 방북 등 비핵화 통한 동북아 정세 개편 美, 北 핵실험장 사찰단 곧 파견 북일정상회담 가능성도 대두



평양을 방문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 지난 8일 서울에서 수행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중전선언과 평화협정, 북한 비핵화를 놓고 직접적 당사자인 남·북·미뿐만 아니라 주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가 세하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6일 도쿄, 7일 평양과 서울, 8일 베이징을 각각 방문해 2차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 가운데 주변국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 준비를 갖추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 들러 김 위원장을 만나 2차 북미회담 조기 개최 가능성을 연 미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조만간 풍계리 핵실험장 검증에 나선 사찰단을 북한에 파견할 계획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전날 중국을 방문한 뒤 9일 본국으로 돌아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는 아직 최종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7일 서울을 찾아 문 대통령을 예방하고 난 뒤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차 정상회담의 구체적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 미국과 북한이 협의를 계속 진행해나가기로 했다'는 정도다.

물론 폼페이오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는 2차 회담의 대략적인 시기 등에 대해 어느정도 귀뜸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다만 2차 북미회담 개최는 실질적 비핵화 수순부터 중전선언 문제까지 미국과 북한이 협의를 해야 가능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두

번째 만나는 만큼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과는 다른 진일보한 내용이 확정돼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2차 북미회담 조기 개최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중국뿐만 아니라 그동안 북한과 소원했던 일본, 러시아도 김 위원장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별도로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다"며 "바야흐로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북한, 한국, 중국 등 4개국 방문을 마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9일 트위터를 통해 비핵화 협상 진전에 노력을 다한 국무부 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변국의 움직임은 실제로 빨라지고 있다.

러시아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자국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김 위원장)방문의 가능한 시기와 장소, 형식 등에 대해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외교 채널을 통해 상세한 방문 내용이 합의되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북·러 정상회담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았지만 올해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게 현지 소식통의 분석이다.

북한과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이 절실한 일본도 두 정기간 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일본을 다녀간 후 일본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의 연대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일본 NHK 보도에 따르면 평양을 방문했던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과 회담하면서 일본인 납치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적 우방국의 끈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정상간 만남 역시 연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은 올해 들어 벌써 3차례나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다. 이에 따라 이번엔 시 주석이 북한을 찾을 차례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4번째 평양 방문에서 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검증을 위한 사찰단 수용을 약속함에 따라 사찰단의 역할과 구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에 갈 사찰단의 기본 역할은 지난 5월 이뤄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해체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중대한 진전을 이뤘고 중대한 진전을 계속 만들어갈 것"이라며 "(현장 검증)실행을 위해 요구되는 여러 가지 실행계획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풀리는 대로 현장에 투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혈세로 명품·외제차 구입한 청년농부”

정운천 의원, 농협은행 분석

44억 지원금 중 농업 소비는 5억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영농정착지원금 일부가 명품구매, 주점 등 술집, 과태료 납부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농업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바른미래당) 의원이 농협은행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위와 같은 제품 구매 및 지출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다.

올해 전체 예산은 83억 원으로, 8월말

기준 1099명의 청년농들의 사용실적은 13만1354건, 44억20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2000명을 추가로 선발해 총 3600명에게 23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 의원의 조사결과, 8월말까지 청년농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내역은 '마트와 편의점'으로 사용된 금액은 11억 원에 달했고, 그 뒤를 이어 쇼핑 9억, 음식점 8억 원으로 조사됐다. 농업관련 분야는 사용된 실적은 5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쇼핑 실적 내역을 살펴 본 결과, 명품 구매를 위한 200만원 사용을 비롯해 고가의 가전제품과 가구 구매, 커피전문점 카드 충전, 면세점, 심지어 테슬라 자동차회사에서 사용한 실적 등이 속속 드러났다.

정 의원은 “농식품부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3배나 더 많은 예산을 반영했다”고 꼬집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최대 쟁점 ‘부동산 대책’... 건설사 주장 줄소환

국토위 국감 D-DAY

부동산 대책 실효성, 여야 격론 예고 재건축 사업 관련 롯데·대우·현대 등

10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의 관련 포인트는 '부동산 대책'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아홉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실효성 등에 대해 여야의 격론이 예상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사회공헌재단 기부금 약속 미이행 등의 이유로 소환되는 건설사 대표에 대한 관심이 높다.

◆검증대 오르는 '부동산 대책'

9일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올해 국토위 국정감사는 1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토부 소관기관 26곳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3곳에 대해 진행된다.

문재인정부에서 벌써 아홉 번째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은 만큼,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은 '부동산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9·13 수요 억제 정책과 9·21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투기를 막는 동시에 무주택자의 심리적 불안을 없애려는 '투트랙 전략'이다. 이후 집값 급등세는 한풀 꺾인 모양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9%로 전주 변동률(0.35%)에 비해 상승폭이 절반가량 떨어졌다.

그러나 야당은 국감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지난해 8·2 대책 이후 오히려 집값이 폭등하는 등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투기심리를 자극했다는 것이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수도권 30곳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3만5000가



2018년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 10일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 등 국정감사자료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구를 공급하고 나머지는 향후 공급하겠다는 불명확한 어음만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서울 집값이 폭등한게 문제인데 서울 대책은 없고 경기도 대책만 내놓은 꼴”이라며 “시장을 무시한 선부른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가져왔고, 거래활성화 없이 5년 이상의 장기 공급대책만 내놓은 것으로는 집값을 잡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건설사 대표 줄소환?

건설업계 CEO(최고경영자)의 증인 및 참고인 소환 여부도 눈길을 끈다.

현재 일부 건설사 대표는 하도급 문제 등과 관련해 정부위원회의 국감 증인 요청을 받은 상태다.

박상진 대립산업 건설부문 대표이사는 오는 15일 하도급관련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다. 같은 날 윤길호 계몽건설 부사장은 공영위 퇴직자 채용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증인으로,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는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 중 하도급법 위반 사례 관련 증인으로 국감대에 선다.

국토위는 아직까지 증인 채택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업계에선 10

대 건설사를 비롯해 다수의 건설업체 CEO가 소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국토위는 국감 마지막 날 일반증인 및 참고인으로 대립산업,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현대건설 대표를 소환했다. 정부가 지난 2015년 4대강 입찰 담합으로 건설사들의 신규 공사 입찰 제한을 추진하자, 건설사들이 이를 사면받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재단을 조성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출연액이 부족해 올해 다시 국감대에 서게 될 전망이다.

롯데·대우건설, 현대건설 등은 각각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 반포 1·2·4지구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국감 증인석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SK건설은 지난 7월 23일 라오스에 시공한 '세피안-세남 노이 수력발전소' 보조댐이 무너져 대규모 홍수피해를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국토위에서 사회공헌재단 기부금 등으로 증인 및 참고인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달에 해외 출장을 준비 중이라는 대표가 많아 참석 여부는 그때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해수부 징계 35% 성매매·몰카 등 성범죄”

박주현 의원, 해수부 분석

해양수산부 직원들의 금품 및 향응수수, 성관련 범죄가 35%에 이르고 2018년 8월까지의 징계처분이 작년의 74%에 근접했다는 점에서 해수부의 실효성 있는 공직기강 확립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농업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주현(민주평화당)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직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59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음주운전, 향응수수, 성매매, 몰카, 공금유용, 절도 등 징계사유도

다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징계처분별로는 음주운전 55명, 금품 및 향응수수 46명, 기타 품위손상 40명, 성 관련 범죄 10명 순이다. 징계종류별로는 경징계 120명(감봉, 견책), 중징계(파면, 해임) 39명으로 중징계가 24.5%나 차지했다.

박 의원은 “성 관련 범죄에 연루된 4명 중 2명이 가장 낮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을 받았으며, 최근 5년간 8명이 징계를 중복으로 처분 받은 것이 드러났다”며 “해수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징계가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희망을 나눕니다

아이들의 꿈이 책을 통해
더 커질 수 있도록
신한이 희망을 선물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희망이 되는 일이라면

Hope. Together.



[아름사 도서관]

신한금융그룹은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협력하며
어린이 도서관을 설립하고 북멘토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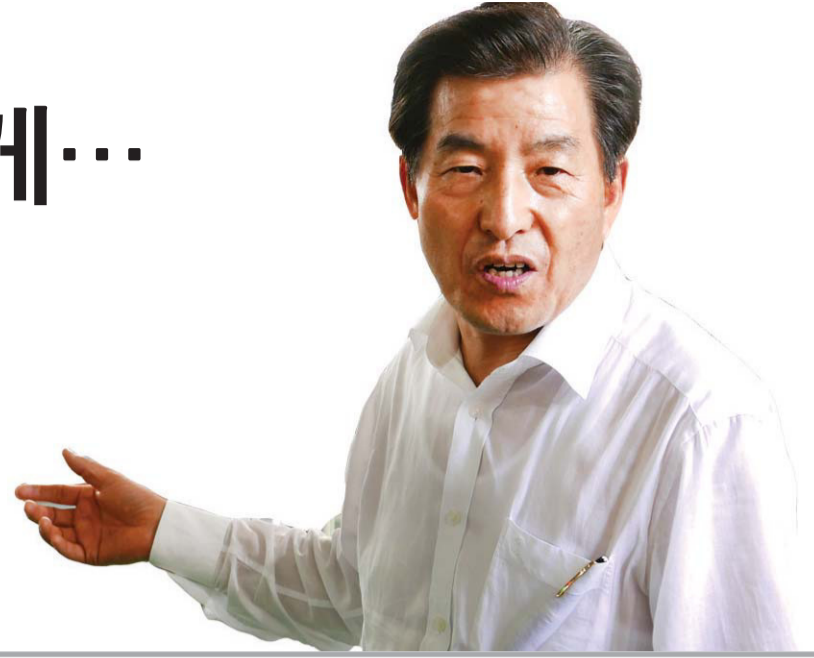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신한BNP파리바자산은행 신한캐피탈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DS 신한아이타스 신한신용정보 신한대체투자운용 신한리츠운용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금융그룹**

회사 수익 늘리고 늘려 임직원에게… '3일4석610' 기술인 비전 도우미

(30세 1억, 40세 석사, 60세 10억)

메트로가 만난 기업인
정영화 대호테크 대표



'3일4석610, 181530...'
광학제조장비, 전자제품 생산용 정보통신(IT) 장비, 산업용 로봇 장비 등을 제조·판매하는 대호테크의 정영화 대표(사진)는 회사 비전을 이렇게 숫자로 설명하길 좋아한다.

'3일4석610'은 '고졸실습 사원이 서른 살에 1억원을 벌고, 마흔 살까지는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예순 살에는 현금 10억원을 모아 기술 유목민이 되게 하자'는 정 대표의 경영철학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구미전자공고 출신인 정 대표는 고 3 때 실습 나왔던 회사에 취업해 17년간 직장생활을 했다. 하지만 외국계였던 회사는 노사 분규 때문에 결국 한국에서 철수했고 졸지에 실업자가 돼야 했다. 당시 친구와 500만원씩을 모아 주택가 지하에서 창업한 것이 사업가로서 그의 첫 발걸음이었다.

실업계 출신이었고, 배고픈 시절을 수 없이 겪은 자신이었기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하며 회사 임직원들을 위한 경영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한 때 정 대표 자신의 처지였던 것처럼 흡수자인 직원들을 금수저로 만드는 것을 그의 꿈꾸고 있는 것이다.

"요즘 갈아선 대학 졸업 후 서른 전에 취업이라도 하면 훌륭한 출발이다. 또 월급쟁이가 자식들 교육시키다보면 저축은 커녕 빚만 안지면 다행이다. 서른에 현금 1억, 예순에 10억을 모은 후 배운 기

술을 갖고 전 세계로 기술 지도를 하려 다니는 기술 유목민을 만든다면 그보다 더한 복지도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정 대표가 말했다.

대호테크는 전문학사부터 박사까지 직원들 학비 전액을 지원해준다. 많은



대호테크 정영화 대표가 경남 창원에 있는 본사 공장에서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직원들이 이 혜택을 톡톡히 누리면서 학사, 석사, 박사도 도전했고 또 하고 있다. 회사 수익의 10%는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수익의 1%는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원칙이다. 성과급의 경우 절반은 순수한 성과를 기준으로, 나머지 절반은 근속연수, 경력, 결혼 여부, 나이 등을 감안해 준다. 기술개발 성과가 없

어도 과정이나 노력 기여 등을 참작해 소외되는 임직원이 없도록 배려하는 것도 특징이다. 성과급과 별도로 특허 등을 내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포상한다. 2015~2016년에만 이를 통해 총 30억원의 보상금을 나눠줬다.

정 대표의 명함엔 직책이 대표이사도

치 예전에 양반, 상놈하면서 신분이 나눠진 것 처럼 '공원'과 '사원' 간에도 신분 차이가 크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회사가 성장하고도 '누구나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세상에 적합한 직책'으로 운전자를 생각해 이 명칭을 25년째 쓰고 있다"면서 "택시 운전자를 만나면 운전자

'7천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고, '월드 클래스 300' 기업에도 선정됐다.

"남들이 만들지 못했으니 우리가 부르면 (시장)값이 된다. 이를 토대로 올해(2018년)엔 (계열사를 포함한) 매출 1500억원, 영업이익 300억원에 도전하고 있다."

'181530'이란 이런 대호테크의 올해 목표한 실적을 의미하는 숫자다. 실제로 한 대에 2억원 정도씩하는 곡면 스마트폰용 유리성형기는 대당 영업이익률이 30~40%에 달할 정도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매출 가운데 90% 가량은 해외에서 거둬들 정도로 이미 글로벌 기업의 반열에도 올라섰다.

정 대표는 108세까지 살다가 물구나무를 서서 죽는 것이 꿈이다. 어찌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꿈이다. 하지만 정 대표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절 보조장치'를 이용해 108배를 하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한다. 그리고 물구나무서기로 마무리한다.

"물구나무를 설 수 없으면 기업 경영을 하지 않겠다는 게 내 생각이다. 건강에도 물구나무가 그리 좋을 수 없다. 매일 매일 물구나무서기를 하는 것은 이때 문이다."

물구나무서기는 하루 하루 전쟁을 치러야 하는 기업가로서 정 대표의 마음가짐이자 리더로서 자신에 대한 주된인 셈이다.

/글·사진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수익 10% 성과급 1% 지역사회로
2015·2016년 임직원에 30억 나눠
올해 매출 1500억·이익 300억 도전
매일 아침 108배·물구나무로 시작
"물구나무 설 수 없으면 경영 않겠다"
기업가로서 하루하루 마음가짐 다져

로 친구가 되고, 기계 장비 운전도 운전자, 회사를 운전하는 것 역시 운전자가 되니 딱 맞는 직함인 것 같다"고 웃으면서 말했다.

대호테크는 최신 스마트폰 앞뒤의 유리 곡면으로 만들어주는 '곡면 스마트폰용 유리성형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정평이 나 있는 회사다. 2017년에는

휴롬

가을맞이 프로모션 원액기·티마스터 할인

휴롬은完연한 가을을 맞아 원액기와 티마스터를 할인가로 선보이는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오는 18일까지 이마트에서 진행하는 '2018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를 통해 휴롬 티마스터를 정가보다 1만원 쉰 8만9000원에 판매한다.

또 이달 31일까지 롯데하이마트에서 진행되는 '퍼펙트 웨딩페이'에서 올해 출

시한 신상품 휴롬디바를 첫 할인가로 선보인다. 가격은 정가인 39만9000원에서 할인된 36만9000원으로 오프라인 매장 외에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제품을 만나 볼 수 있다.

휴롬 티마스터는 가정에서도 간편하게 다양한 종류의 차를 마실 수 있는 전기 티포트로 재료에 따라 버튼만 누르면 최적의 시간과 온도로 차를 우려내는 제품이다.

휴롬디바는 2개의 주스필터를 사용해 찌꺼기가 끼지 않아 매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척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 필터 세트를 분리해 물에 행구기만 하면 30초 안에 세척이 끝난다. /김승호 기자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카페운영 교육 참가 모집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은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바리스타 판)을 대상으로 경영활성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달 20일과 27일 서울 강남구의 탐앤탐스 아카데미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지난 6월 피부미용업 편 및 플로리스트 편에 이어 바리스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 경영 교육이다.

교육과정은 ▲커피 향미 평가법(핸드 드립&에스프레소) ▲커피머신 사용자 정비 소모성부품 교환 등 실습교육 ▲인건비 절감 방법 등 이론교육으로 구성됐으며 현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됐다.

또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해 희망업체에 한해 교육이 끝난 후엔 ▲마케팅 ▲고객관리 ▲매장운영 ▲메뉴개발 ▲세무, 노무, 법률 등 소상공인들이 평소 애로가 많았던 분야에 대해 업체별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한다. /김승호 기자

고객 100만명을 향해... 말런서 열린 '코웨이 런'

2년째 말런 마라톤 대회 단독 개최
올해 6000여명 참가로 규모 커져

코웨이가 말레이시아에서 2년째 마라톤 대회를 단독으로 열며 위상을 높이고 있다.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지 10년이 훌쩍 넘은 코웨이는 지난해 현지 매출액만 2000억원을 넘어선데 이어 올해엔 '100만 계정 돌파'도 목표하고 있다.

코웨이는 지난 7일 말레이시아 세르당 MAEPS공원에서 '제2회 코웨이 런' 마라톤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해선 코웨이 대표이사도 참가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5km 구간을 함께 뛰었다.

'코웨이 런'은 코웨이가 추구하는 건강한 삶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마련했다. 참가자들이 달리는 동안 물을 마시고, 숨을 쉬는 과정 속에서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환기시키기 위해 기획했다.

올해 코웨이 런에는 약 6000여 명의 말레이시아인들이 참가해 지난해보다 규모가 더욱 커졌다. 특히 코웨이는 올해엔 핵



지난 7일 말레이시아 세르당 MAEPS공원에서 개최된 '제2회 Coway Run(코웨이 런)' 마라톤 대회에서 이해선 대표이사(왼쪽에서 7번째) 등 참가자들이 출발 준비를 하고 있다. /코웨이

심 역량인 물과 공기를 형상화한 코스를 구성해 브랜드 친근감을 높였다. 참가자들이 대형 미스트 터널, 에어 터널, 스프링클러 등을 통과하며 더위를 식히고 물·공기의 가치를 몸소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3m 크기의 대형 코웨이 정수기와 공기정정기를 설치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코웨이는 말레이시아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다한다는 계획이다. 마라톤 참가자 수만큼 일정 금액을 사회공헌기금으로 모으고, 적립금은 식수가 부족한 말레이시아 외곽 지역의 열악한 수질환경

을 개선해나기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5년간 말레이시아의 1000가구에 빗물공급장치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세운 바 있다.

이외에 한류를 현지에 전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한국 관련 이벤트 존, 한복 체험, 한식 푸드트럭 등을 마련해 참가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도 얻었다.

2006년 설립한 코웨이 말레이시아 법인은 특히 최근 6년간 연평균 30% 이상씩 고속성장하며 현지 정수기 시장에서 1위를 고수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방역체계 ‘구멍’... 붉은불개미 대량 발견, AI 항원 검출

안산·인천서 ‘붉은불개미’ 발견
“유출 가능성은 낮아” 긴급방제

경남 창녕에서는 AI 항원 검출
장척저수지·철새도래지 우포늪
각각 방역 차량 배치 ‘긴급방역’



8일 오후 붉은불개미가 대량 발견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스팀청소기 전문 제작 업체 물류창고 컨테이너에서 관계자가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생태계교란종 ‘붉은불개미’가 무더기로 발견되고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항원이 검출되는 등 곳곳에서 정부 방역체계가 풀리고 있는 모습이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국내 유명 스팀청소기 제작 업체의 안산 물류창고 내 컨테이너 안에서 붉은불개미 5천900여 마리가 발견돼 검역 당국이 긴급 방제에 나섰다. 이 컨테이너가 27일간 적치돼 있던 인

전항에서도 같은 종으로 추정되는 개체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붉은불개미는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에 속하는 해충이다. 지난해 9월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국내 최초로 발견된 이래 여덟 번째다.

붉은불개미에 물리더라도 그 독성은 꿀벌과 비슷한 수준으로, 영향은 있지만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체 샘플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붉은불개미로 확인됐다”며 “여왕개미를 찾고 있으나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며 “컨테이너 내부에서 개체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물류창고 밖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붉은불개미는 A사가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제작해 들여온 무선청소기를 적재한 컨테이너 내부에서 발견됐다.

이 컨테이너는 지난달 8일 중국 광둥성에서 출발해 같은 달 11일 오후 인천항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날 오전 5시 50분 안산 물류창고로 반출될 때까지 약 27일간 인천항에 적치돼 있었다.

검역본부는 이날 오후 이 컨테이너가 적치돼 있던 인천항 내 한진컨테이너터미널 바닥을 조사하던 중 붉은불개미 30여마리를 추가로 발견하기도 했다.

검역당국은 인천항에서도 긴급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경남 창녕에서는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이 검출돼 방역당국을 긴장

시키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창녕군 장척저수지 근처 농경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검사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지난 7일부터 지자체와 군이 긴급 방역을 진행 중이다.

군은 AI 항원이 검출된 장척저수지와 철새도래지 우포늪 주위에 각각 방역 차량 3대를 배치했다. 우포늪은 장척저수지에서 10km 이상 떨어졌지만 장척저수지보다 철새 숫자가 훨씬 많은 점을 고려, 만일에 대비해 방역을 함께 하고 있다.

군은 또 가금류 사육 농가 진입로에 생석회를 살포하고, 철새도래지 출입 차량 소독을 위한 발판 소독조 구성, 출입 제한 경고판 설치 등의 조치를 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겨울 철새의 국내 도래가 확인됨에 따라 지난 2일 철새 도래 경보를 발령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MB, 향소포기?... 정치보복 구도로 가나

1심서 징역 15년형 선고받아
내일까지 향소여부 결정할 듯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다스 실소유주’로 판단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갈림길에 섰다. 향소를 포기하면 ‘보복 정치’ 프레임이 가져갈 수 있지만, 다스는 본인 소유임을 자인하게 된다. 향소할 경우, 직권남용 무죄처럼 일부 유리한 1심 판단마저 뒤집힐 수 있다.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은 이 전 대통령은 11일까지 향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향소는 재판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검찰은 이미 향소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은 이 전 대통령 향소 여부에 관계 없이 열린다.

일각에선 이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재판 포기로 ‘정치 보복’ 구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속 단계부터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해왔다.

문제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전 대통령이 향소를 포기할 경우, 자신을 다스 실소유주로 결론 낸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11월~2011년 11월 삼성으로부터 다스 미국 소송 비용으로 64억2376만7383원을 지원 받은 혐의 등 16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2003년 5월부터

김경준 BBK 대표를 상대로 다스의 미회수 투자금 140억원을 반환하는 민사소송을 시작했다. 2008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변호사 김재수 씨를 LA 총영사에 얹혀 소송을 지원케 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 취임 이전 부분인 3억5025만원만 무죄로 보고, 재입 중 지원받은 나머지 금액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에 적극 관여하고, 가족과 주요 경영권을 행사한 점 등을 근거로 그를 다스의 실소유주로 판단했다.

직권남용 혐의 무죄 판단도 향소를 고민케 하는 대목이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김재수 변호사를 LA

총영사직에 얹혀 다스 미국 소송을 지원케 한 혐의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려면 해당 지시가 대통령의 직무권한에 있어야 하는데, 다스 소송 지원은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직무 권한 범위를 넓게 해석할 경우,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앞서 서울고법 제4형사부(김문석 부장판사)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KT 인사 관여, 현대차의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등을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일 뿐, 직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고 강요죄만 인정했다.

반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공무원 사직과 각종 지원 사업 배제 부분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 또는 일부 유죄 판결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전경련과 기업체로 하여금 미르재단에 486억원, 케이스포츠재단에 288억원을 출연케 한 점도 직권남용으로 인정했다.

한편, 지난 5일 ‘화이트 리스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보수단체 지원이 직무 밖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 무죄, 강요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법원의 직권남용 해석이 점차 좁아져 관련 혐의 유죄 입증에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법종 기자 joker@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방지시설 예산 확대

노동부, 작년 추락사 275명
내년 예산 331억원 편성키로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재해(떨어짐)로부터 작업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9년 소규모(20억 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추락재해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작년의 경우 전체 산업현장 사고사망자의 52%(506명)가 건설업에서 발생했고, 이 중 54%(275명)가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정부 지원을 통해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한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은 현장보다 추락재해가 약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 이후 정부로부터 추락방지 시설비용을 지원받은 건설현장에서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

생하지 않고 있어, 소규모 건설현장 작업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안전시설 설치 지원 필요성은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올해 예산을 38억 증액한 데 이어 내년에는 추가로 93억원을 증액해 331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건설현장의 사업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돼 약 1100여 개소 이상의 소규모 건설현장이 추가로 정부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추락사고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도 추락방지시설 설치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된 만큼 적극적으로 비용지원을 신청해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농진청, 지역특색 살린 와인 첫 선

9개 농가서 사과·산딸기 와인 등 출시

농촌진흥청이 지난 2016년부터 ‘고품질 과실주 제조 기술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9개 농가에 와인 블렌딩 기술을 지도한 품질 좋은 와인을 9일 선보였다.

블렌딩 와인은 여러 품종의 포도를 섞어 만든 것으로, 산미와 당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부드럽고 품미가 좋은 와인을 만들 수 있다.

농진청은 영농활용기술인 ‘개량머루와 MBA, 캄벨리 혼합와인 제조 방법’으로 산도·당도에 따른 혼합비율과 숙성 시기를 기술 지원해 적정 산도 0.6% 내외, 알코올 11%인 와인을 생산했다. 또한, 생물을 제거하고 혼합한 다음 숙성시켜 블렌딩 와인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했다.

이번에 9개 농가에서 선보인 와인은 사과, 산딸기, 아로니아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지역 특색을 살렸다.

기술을 지도 받아 너브내 와인을 생산



경남 의령 블렌딩와인.

하는 강원도 흥천의 농가는 “블렌딩 기술 적용을 통해 와인의 맛을 한층 더 깊고 풍부하게 보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레드시드르를 생산하는 충북 충주의 농가도 블렌딩 와인 상품 판매로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세나 농진청 농업연구사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만든 국산 블렌딩 와인이 다양하게 개발돼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경찰시설 10곳 중 2곳 여경 샤워실 없다

화장실 없는 곳 179곳 달해

전국 경찰시설 10곳 중 2곳은 여경 샤워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9일 경찰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경찰청과 지방청 등 전국 2234개 경찰 건물 중 498곳에 여경 샤워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여경 화장실이 없는 곳은 179곳에 달했다.

현재 여경이 근무하는 서울 지역 지구대(파출소)는 230곳이다. 이 가운데 남성 시설은 있지만 여경 샤워 시설이 없는 곳이 48곳, 화장실이 없는 곳도 6곳으로 나타났다.

경남은 157개 지구대(파출소) 중 109곳에서 여경이 근무하지만, 33곳이 여경 샤워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충북은 여경이 근무하는 곳이 58곳이지만, 휴게시간에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여

성 당직실이 없는 곳이 4군데였다.

여경이 37%인 경찰청의 경우 남성 목욕탕은 3개인 반면, 여성 목욕탕은 한 곳도 없었다고 권미혁 의원은 밝혔다.

경찰은 교대와 야간근무가 잦아, 정원에 맞는 화장실과 샤워실, 당직실, 목욕탕 등 편의 시설이 있어야 한다. 권미혁 의원은 경찰관서 업무 처리편람에 따라 경찰청과 지방청의 경우, 여경·여직원 휴게실은 1~4인 기준 15m², 목욕실(남·여)은 ‘인원 x 1.5m²’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법종 기자

씨 마른 총장직선제... 10곳 중 7곳 법인이 단독 임명

‘사립대학 총장 선출 실태’ 분석

간선제 ‘총추위 통한 선출’ 順
‘총추위’에도 법인 영향력 커
총장직선제 근거 조항 위한
사립학교법 등 개정 필요

국내 사립대 10곳 중 7곳 이상에서 법인이 단독으로 총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화여대와 성신여대가 총장 선출 방식이 직선제로 바뀌면서 대학가에서 총장을 구성원이 직접 뽑아야 한다는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총장 직선제 확대를 위해서는 법개정은 물론 직선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립대 72% “법인이 총장 단독 지명”

9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 총장 선출 실태 조수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138개 사립대 중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지 않은 채 법인이 직접 총장을 임명하는 대학이 99곳으로 71.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가운데 남부대의 경우 이사장이 총장을 임명하면, 이사들이 승

(138개 사립대 총장선출 제도 현황)

총장선출방식	내용	대학 수	비율
완전임명제	법인이 직접 임명	99	72%
직선제	구성원 선출·추천, 이사회 임명	7	5%
간선제	총추위 등 복수추천, 이사회 임명	32	23%

/자료=박경미 의원·교육부

인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이사장 1인이 단독으로 총장을 선출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교수와 교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이 총장 선출에 관여하는 대학은 직선제 7개교, 간선제 32개교로 전체 사립대 중 28%(39개교)에 불과했다. 이들 대학을 구체적으로 보면, 직선제 7곳 중 교수·직원·학생이 모두 직접선거를 하는 곳은 2곳이고, 나머지 5곳은 일부 구성원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다. 직선제 대부분 직접선거로 2명 이상을 총장후보자로 선출하면 이사회가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고, 1곳만 직접선거로 1명을 선출한다.

간선제 방식으로는 ‘총장선출위원회’를 선출한 뒤, 선출위원의 간접선거로 총장

후보자를 뽑는 대학이 1곳이었고,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 등을 통해 선출하는 대학이 31곳으로 법인 임명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총추위에서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대학 27개교 중 법인 이사가 총추위에 직접 참여하는 대학이 19개교에 달하는 등 법인이 총장 선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학이 대다수였다.

◆총장직선제 대학, 교수 비중이 절대적

학교 구성원이 직접투표를 통해 총장을 선출하는 총장직선제를 시행하는 사립대는 7곳(5%)에 불과했다. 이들 대학 대다수는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단 중 교수 비중이 70%를 훌쩍 넘어 교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직원과 학생 등 대학구

성원 전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대학은 성신여대와 이화여대 두 곳뿐이다. 조선대의 경우는 교수와 직원은 전원 투표에 참여하나 학생은 선거권자를 별도로 정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대구대는 교수회와 직원대표 협의를 전체교수회의 동의를 거쳐 교수와 직원을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 숙명여대와 한국외대는 교수만 선거에 참여한다. 한성대의 경우 교수와 직원이 참여하되 직원의 표는 3분의 1로 제한된다.

◆교수 중심 직선제 선거과정·파벌 우려

교수 중심 직선제는 다른 구성원의 참여가 배제되거나 제한됨에 따라 파벌 조성이나 논공행상 등 기존의 교수직선제에서 나타났던 폐단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학 총장 직선제는 1987년 민주화 바람을 타고 국내 대다수 대학에 도입됐으나, 선거 과정이나 교수 사회 파벌 조성 등 부작용이 제기됐고, 법인 임명이나 간선제 등으로 바뀌었다. 이에 총장 직선제가 도입되면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국립대의 경우 지난 정부가 재정지원 사업 평가에서 총장 직선제 대학에 불이익을 주거나, 총장 임명을 미루는 등 총장

직선제를 막아왔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국립대 총장 임용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등 총장직선제를 허용해 군산대 등에서 총장직선제가 부활했다.

사립대의 경우 총장 직선제가 확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화여대의 경우 지난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총장 등 교수진이 구속되는 사태를 겪으면서 개교 131년 만에 처음으로 총장 직선제로 전환했고, 심화진 총장의 교비 횡령 혐의로 법정 구속되는 사태를 맞은 성신여대가 총장직선제로 새 총장을 뽑는 학내 내홍과 동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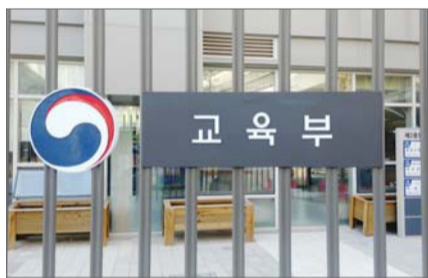
총장직선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교수 파벌 조성 등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방안과 함께 현행 법인 이사회 정관 개정을 위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총장직선제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박경미 의원은 “총장직선제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문제로 인해 대학 구성원의 직접적인 참여 자체가 부정대서는 안 된다”며 “총장추천위원회를 통해 간선제로 선출하는 경우라도 대학 구성원들이 적정 비율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법인과 법인 관계자의 총추위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학생·장애인 대상 교사 성범죄 ‘엄벌’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개정안
성비위 2차 피해 징계기준 신설



교육부.

앞으로는 교육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른 뒤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도 징계가 내려지는 등 교사 성비위 징계 기준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되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은 시도교육청이 설치하는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수를 ‘9인 이상 15인 이하’로 늘리고, 회의는 징계 사안마다 특수성을 고려해 위원장과 위원 6명이 진행하도록 했다. 기존 시행령은 위원 수를 ‘5인 이상 9인 이하’로 정하고 회의 방식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다.

성범죄에 대한 징계사유 조사와 징계 의결 요구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도 의무적으로 듣도록 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피해자에게 정신·신체적 2차 피해를 준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징계 감경 제의 대상에 추가했

다. 기존 시행규칙에는 2차 피해와 관련한 별도 기준이 없었다.

아울러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희롱은 성인 대상 성희롱과 구분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등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미성년자를 성희롱한 경우 과실 정도와 고의성 정도에 따라 최소 정직부터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고, 소속기관의 성범죄 피해자에게 정신·신체적 2차 피해를 준 경우는 견책부터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내달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과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말까지 개정·공표된다.

/한용수 기자

사학 교사 채용비리 3년간 20배 ‘폭증’

2014년 3건... 지난해 63건
‘교육청 위탁채용 제도’ 외면
시도별로는 대구>경기>서울 順

사립학교 교사 채용 비리가 최근 3년 사이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학교가 신규 교원 선발 절차를 교육청에 맡기는 ‘위탁 채용’ 제도가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외면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17년 시도별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교원 채용 비리로 적발된 건수는 93건에 달했다.

2014년 3건에 불과하던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는 2015년 10건, 2016년 17건,

2017년 63건으로 20배 이상 급증했다. 시도별로는 대구가 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6건, 서울 13건순이다. 인천, 울산, 강원, 전북, 경북, 전남, 제주에서는 사립학교 채용비리가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채용 비리가 적발돼 징계조치를 받은 사람은 총 45명으로 경징계 14명, 중징계 31명이었고 행정조치를 받은 사람도 284명이나 됐다. 12명은 임원승인이 취소됐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교원 채용에 필요한 공개전형은 학교 소재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위탁채용 제도 참여율은 지난 3년간 평균 30%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 사립학교에서 채용한 교원은 총 3363명에 달한다. 매년 1100여명을

선발하는 셈이다.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는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같이 공개전형을 통해 교원을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형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임명권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느슨한 법 규정이 사립학교 채용 비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4월 박경미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을 해당 학교 시도교육감에 위탁 실시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박경미 의원은 “전국적으로 연평균 1천명 이상의 사립 교원을 선발하고 있으나 채용비리가 늘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립학교 위탁채용제도 활성화 등 시스템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세종대 ‘글쓰기 고충’ 상담부터 침삭까지

글쓰기센터, 클리닉 진행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호)는 교내 글쓰기센터가 2018학년도 2학기 글쓰기 전문상담과 클리닉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글쓰기센터는 평소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거나 수업 과제물의 수행에 고충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글쓰기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침삭까지 병행한다.

상담 분야는 크게 일반 상담과 침삭 지도로 나뉜다. 일반 상담은 글의 큰 틀을 위주로 기본적인 글쓰기의 방법, 내용 구성, 서술 방식, 표현 등을 다룬다. 침삭 지도는 좀 더 세부적인 글인 에세이, 비평문, 독서 논술, 과제 리포트, 보고서 등을 다룬다. 단, 취업 분야의 글쓰기는 제외된다.

상담은 세종대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한용수 기자

중부교육지원청 롯데백화점 본점서 평론가와 영화 이야기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병오)은 용산구·종로구·중구 관내 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18일 ‘평론가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영화 V’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12일까지 학습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5차 프로그램은 중부평생교육 후원기관인 롯데백화점 본점 문화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개봉하는 영화 ‘퍼스트맨’을 함께 관람한 후 ‘팟캐스트-명화 남녀’를 진행 중인 한기일 평론가의 평론과 영화 촬영에 얽힌 이야기, 영화 촬영 기법, 영화의 스토리 등을 들으며 영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을 있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한용수 기자

교총 “교원 보수, 타 공무원 비해 낮아”

‘교원처우 개선 예산 반영’ 건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19 교원 처우개선 예산 반영 요구 건의서’를 지난 8일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에 각각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교총 관계자는 “정기국회가 열리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과 공무원 인건비를 담당하는 부서에 현 교육 현장의 현실과 처우 등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교원 보수 우대를 규정하는 각종 교육관계법의 입법정신을 구현하고, 교직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보상체계를 정립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 제고와 교원 처우 개선을 통해 교원 사기 진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최근 업무 부담으로 기피업무에 대

한 실질적인 보상기제를 마련해 일선 학교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하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교총에 따르면, 현행 교원의 보수 수준은 타 공무원 직종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국교총은 “교직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전체 공무원 인건비 규모에서 보수액과 인상이 결정되는 구조가 교원 보수 우대를 규정하는 교육관계법의 입법 정신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이 예산으로 반영해달라는 건의사항은 ▲보직교사 수당 3만원 인상 ▲유치원·영양교사의 원로교사수당 5만원 지급 ▲교직수당 10만원 인상 ▲유치원 원장·원감 직급보조비 신설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현실화 등이다.

/한용수 기자

시공사: (주)DAELIM
아크로텔 천안두정
 1,135세대 오피스텔

계약과 동시에 월세 바로 지급!
 월 90만원 / 연 1080만원 10년 확정 지급!

선시공 후분양
10년 임대보장

9.13 부동산 규제정책 반사이익 수혜상품!!

- ✓ 1가구 2주택 미적용
-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 임대사업자 대출규제 제외대상
- ✓ 양도세 증가 미적용

삼성 SDI, 디스플레이
 LG생활 + 17개 대학교
 ↓
 약 18만 풍부한 수요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산업단지 5분!**

5천에 2채

계약즉시
 월세수익

임대료지급보증 보험증권 발행

100% 임대완료! 준공완료!

- ✓ 공실걱정 無
- ✓ 유지보수 無
- ✓ 중개수수료 無

시행사: (주)골든핏씨앤디
 시공사: 대림산업
 신탁사: 아시아신탁
 분양사: (주)엔터렘

• 우리은행 : 1006-301-474637
 • 예금주 : 아시아신탁(주)
 • 청약금 : 100만원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문의 1811-8821

10년 임대보장 확정! (보험증권 발행)

시공사: **DAELIM 아크로텔** 천안두정
 1,135세대 오피스텔



시공사: (주)DAELIM **아크로텔오피스텔** **서울의 반값 매각 공고**

▶ 건축개요

사업명	천안 두정 대림이 지은 아크로텔 - 선임대 반값 매각		
사업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464	신탁사	아시아신탁(주)
지역, 지구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 제1종지구	시공사	대림산업(주)
대지면적	7,338.40㎡	연면적	67,484.95㎡
건축규모	지하4층 / 지상12층	공급호수	1,135세대

▶ 청약 및 계약 신청자격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인 분(국내거주 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에 한해 가능합니다. 분양신청의 중복 호실에 있는 경우 입금 순서에 의해 결정됩니다.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신청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청약신청서 (배우자포함)	* 신분증,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계약신청서 (배우자포함)	* 신분증,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 분양조건

전세대 임대완료			
보증금 500 / 월 45	보증금 1,000 / 월 41	보증금 1,500 / 월 37	보증금 6,500 / 월 20
* 10년 책임임대보장제 (보증보험증권발행)			

▶ 청약금 납입절차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청약금
우리은행	1006-301-474637	아시아신탁(주)	100만원
* 상기 입금계좌 접수순으로 1순위 층, 호수 선착순 마감합니다. (미계약시 전액환불)			

▶ 분양금 납입절차

계약금	담보대출	잔금
10%	70% (신한은행 상도역 지점)	10% ~ 15%
* 실무자금액 2천만원대		

▶ 청약 및 계약장소

청약, 계약	신청장소
층, 호수 선착순 지정계약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2층 대림이 지은 아크로텔 오피스텔 홍보관

※예약당첨제이므로 당첨자와 방문예약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신문을 지참하시면 특별혜택을 드립니다.
 ※천안 두정아크로텔은 대림산업이 시공, 준공완료한 임대주택으로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골든핏씨앤디의 임대 보유분 매각 결과는 시공사인 대림산업과는 관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혜택**
- 1 1가구 2주택 미적용
 - 2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 3 임대사업자 대출규제 제외대상
 - 4 양도세 증가 배제

문의 1811-8821

저출산 해결, 기본이 우선이다



오지현의
여성당당

우리정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130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다. 출산 장려를 위한 각종 지원금, 아동수당, 분유 값, 기저귀 값 지원까지 2000가지가 넘는 다양한 저출산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효과성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우리사회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및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9월 28일 발표한 '2018년 7월 인구동향'에 의하면 올해 7월 출생아 수는 2만7000명으로 지난해 동월(2만9400명) 기준대비 8.2%인 2400명이 감소하여 32개월 연속 최저치로 기록되었다.

결혼과 출산 적령기인 30~34세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저출산 현상을 가속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30대 초반 연령대가 집값 및 교육비용에 대한 부담,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따른 육아 부담 등을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거나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서 총 인구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 있다. 주거 문제는 젊은 세대의 결혼 비율을 낮추고 저출산으로 직결된다.

정부는 저출산을 가속시키는 원인 중 하나인 집값 안정을 위해 총 세 차례 부동산 대책(8·27, 9·13, 9·21)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집을 한 채 이상 소유한 사람들은 상승하는 세금을 걱정하고, 집이 없는 신혼부부는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으로 인해 부모 도움 없이 집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는 디딤돌 대출, 보증자리론 등 대출 조건을 완화하였지만, 합산소득 제한으로 실제 맞벌이 신혼부부는 여전히 대출을 받기 쉽지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결혼 초 주거형태, 주거의 안정성이 높을수록 희망 자녀의 수 또는 실제 출산 자녀 수가 증가한다고 한다.

한 언론사에서 발표한 공무원의 출산율을 살펴보면 공무원은 정년보장, 후한 공무원 연금 지급, 웬만한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 자유롭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사용이 가능해 일반 국민 1000명이 낳은 신생아 14.5명에 비해 약 두배 이상 높은 수치인 32.7명(중앙부처 공무원), 30.7명(지자체 공무원)을 낳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여성이나 비정규직 여성들은 출

산 후 조직 내 분위기로 인해 조직을 떠나게 된다. 고달픈 독박육아 후이들을 기다리는 곳은 아르바이트와 같은 비정규직의 질 낮은 일자리뿐이다.

서울은 아직도 주택보급율이 96.3%에 불과하다. 정부는 강남 잡는데만 몰두할 게 아니라 용적률을 비롯해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내 직주근접(職住近接)이 가능한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 서울시 공공부문 임대주택 확대도 지난 5년간 전체물량의 11%에 불과한 만큼 공급확대와 뉴스테이 등 민간임대 사업도 활성화 해야 한다.

문재인정부 들어 일자리 예산 54조원으로 신규인력이 3천개 늘었다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매년 30만개씩 만들어지던 일자리가 오히려 29만7천개 날아간 것이니 자갈논에 물대기도 이런 경우는 없다.

수도권 GTX3개노선 착공시기를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라 한다. 도심에서 직장까지 30분 안팎이다. 수도권 시민들의 발이 되어줄 GTX의 착공시기를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효과적 출산정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는 종합적인 접근이 정책의 기본일 때 가능할 것이다.

/경민대학교 국제비서과 교수(학과장)



NH농협은행, 농업인 등 자녀 초청 '매직 테니스 레슨 교실' NH농협은행은 지난 8일 전북도청 테니스장에서 농업인 및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매직테니스 레슨 교실'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스포츠를 통해 소통하면서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전북 농촌지역 및 다문화가정의 자녀 50여 명과 NH농협은행 스포츠단 테니스 선수들이 함께했다. 특히 2018 WTA 코리아오픈 테니스대회 개인복식에서 우승하며 대한민국 테니스의 저력을 보여준 최지희 선수도 일일 교사로 나서 적극적인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

/NH농협은행



오병관 농협손보 대표, 태풍 피해 현장 방문 NH농협손해보험은 오병관 대표가 지난 8일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영주시 소재 사과 농가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9일 밝혔다. 오 대표는 현장을 둘러보고 피해 농가의 애로사항을 들은 후 현장에 함께한 손해 평가 직원 및 지급 담당 직원들에게 신속한 사고조사를 당부했다.

/NH농협손보

삼성전자, 태국서 자연 생태계 재건 봉사활동

살락프라 야생동물 보호구역
동물 주거환경 개선 등 진행



10월 4일부터 5일까지 삼성전자 태국법인 임직원들이 태국 칸차나부리 지역에 위치한 살락프라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찾아 자연 생태계 재건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현지시간) 태국 칸차나부리 지역에 위치한 살락프라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찾아 동물 주거환경 개선과 수자원 보호 등 자연 생태계 재건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1965년 설립된 살락프라 보호구역은 태국 최초의 야생 동물 보호지역이다. 약 860km²(약 30만 평)에 이르는 방대한 면적에 150여 마리의 야생 코끼리를 비롯한 수백여 종의 멸종위기 동물이 살고 있다.

삼성전자 태국법인은 지난 3년간 태국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 왔다. 올해는 태국 법인 임직원들이 직접 투표를 진행해 살락프라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선정하고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활동에 참여한 60여명의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건기의 물 부족 현상을 대비한 소형 댐 건설을 지원하고, 야생 동물들이 소금을 보충할 수 있는 인공 소금 구조물

을 설치했다. 살락프라 보호구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텐트와 신발 등 다양한 물품을 전달했다.

살락프라야생동물보호구역의 삼림보호 총괄자 토스폴 위치나산은 "자연과 야생동물을 존중하는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도움을 받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삼성전자의 환경보호 활동이 보다 널리 확대돼 태국의 환경보호 인식에 긍정적

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감사를 표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삼성전자 태국 법인의 푸나락 핀카논드 직원은 "삼성전자 직원으로 태국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다"며 "현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활동을 진행하면서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KT, 중기와 에너지 통합 전시관 운영

2018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9개 주요 회원사와 협업 성과 소개



KT 전시부스 /KT

KT가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대표 에너지 전문 전시회 2018코리아 스마트그리드엑스포에 참가해 KT 에너지 얼라이언스 통합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KT 에너지 얼라이언스는 2018년 2월 생산-소비-거래 등 에너지 사업의 전분야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사업자 연합체다. 에너지 장비 제조사 및 솔루션 기업 20여 개사로 출범했는데 현재 신재생 에너지 전문업체 등 50여 개의 파트너사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민간 에

너지 사업자 연합이 됐다. KT는 이번 전시회에서 기가 에너지 서비스와 함께 KT 에너지 얼라이언스 소속 9개 주요 회원사(파트너사)와의 협업 성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안병도 기자

SPC, 태풍 피해 경북 영덕에 긴급 구호품

파리바게뜨 빵 2000개
삼립 생수 2000개 등 전달



물고있는 이재민들과 피해 복구작업에 참여하는 인력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SPC그룹은 제 25호 태풍 '콩레이'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영덕 지역에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파리바게뜨 빵 2000개와 SPC 삼립 생수 2000개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했으며, 구호물품은 수해로 대피소에 머

자는 "하루빨리 조속한 복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인사

- ◆예금보험공사 ◇1급 승진 △고객경영지원실장 배효진 △북북자산신탁수TF 실장 지창우 △비서실장 정동호 ◇2급 승진 △금융정보부 팀장 진주태 △혁신경영실 팀장 진호정 △국제협력실 팀장 윤성욱
- ◆기획재정부 ◇실장급 인사 △재정관리관 이승철
- ◆과산관 ◇5급 승진 △행정과 연기웅 △문화관광과 민혜정 △안전건설과 김진성 △안전건설과 신상돈 △축수산과 손기철

부음

- ▲박영덕 씨 별세, 김철수(번호사)씨 장인상 = 8일 오후, 군포지생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10일 오전 8시 30분. 031-389-3774
- ▲변준순 씨 별세, 노희호(자영업)·인호·홍호·노호 씨 모친상, 노경백(스포츠월드 광고국 부장)씨 조모상 = 9일 오전 3시 30분, 부평세림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1일 오전. 032-523-8844
- ▲노해순 씨 별세, 강학희(한국콜마 기술연구원 사장)씨 모친상 = 8일 오후 10시 5분, 서울 안암동 고려대병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11일 오전 6시 30분. 02-923-4442
- ▲이달진 씨 별세, 택경(항공대 교수)·택휘(공상은행 부대표)·택수(야촌주택 부사장)씨 부친상 =

- 7일 서울성모병원 11호실, 발인 10일 오전 7시. 010-7116-0597
- ▲김찬호 씨 별세, 한경호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현 행정공제회 이사장)장인상 = 8일 오후 6시 30분, 사천시 송포동 삼천포시민장례식장 V IP실, 발인 10일 오전 8시 30분. 055-834-1051~2
- ▲서상원씨 별세, 안치원(부천시 중3동장)씨 모친상=9일 오전 5시, 경상북도 영주시 현대장례식장, 발인 11일 오전 7시. 054-634-4400, 010-8278-2906
- ▲손영주씨 별세, 손진(한국예탁결제원 연구개발부 차장)씨 부친상 = 8일 오전, 영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11일. 053-620-4647

필리핀 휴양지 사진 올리고 여행권 받자

이마트-필리핀 공동 프로모션

이마트는 오는 11일부터 11월 7일까지 이마트오프라인·온라인 방문 고객이 '필리핀 휴양지 사진'을 찍어 개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필리핀 휴양지 여행권을 제공하는 경품행사를 연다고 9일 밝혔다.

'필리핀 휴양지 사진'은 이마트 오프라

인 매장에서는 필리핀 과일코너 앞에서, 온라인몰에서는 필리핀 과일 상품 세부 정보에서 찾을 수 있다.

고객은 해당 사진을 지정 해시태그(#이마트필리핀관광부, #필리핀여행, #이마트, #가고싶은지역명-마닐라, 세부, 보홀, 보라카이)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된다.

/신원진 기자 tree6834@

진로 멘토링·스포츠 활동·학교폭력 예방 등

“청소년이 미래”... 식품업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펼쳐

‘지속 가능성’ 미래가치 창출 힘써
프로젝트·캠페인 등 장기적 접근

식품업계가 지속 가능한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이 산업 전반에 걸쳐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기부금 전달, 연례인 홍보대사 이벤트 등 단발성 이슈에서 벗어나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캠페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진로 멘토링부터 스포츠 활동, 학교폭력 예방, 바른 먹거리 교육까지 식품업계가 청소년들을 찾아 학교로 찾아가고 있다.

한국 코카콜라와 코카콜라 청소년건강재단은 올해 사단법인 WIN(Women in Innovation)과 손잡고 청소년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청소년 드림UP’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 드림UP’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포츠 클래스’와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탐험하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드림 클래스’로 구



코카콜라 진행하는 ‘드림 클래스’.



/코카콜라 풀무원이 실시하는 ‘바른먹거리 캠페인’.

/풀무원

성됐다. 스포츠와 진로 멘토링을 통해 신체는 물론, 심리적·사회적으로 행복한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통합적 관점에서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스포츠 클래스’는 코카콜라 청소년건강재단이 기존 ‘스포츠 교실’을 통해 진행해왔던 그룹 스포츠활동인 평등농구를 적용한 것이다. 올해 신설된 ‘드림 클래스’는 국내 및 다국적 기업의 여성 임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WIN과의 협업을 통해 전현직 기업 임직원 50여명이 청소년들의 드림멘토로 나선다.

오는 10월 27일과 28일에는 경기도가 평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에서 중, 고등 학생 300여 명과 함께하는 ‘2018 드림UP 페스티벌’도 개최할 계획이다.

오리온은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 EBS와 함께 ‘2018 교실에서 찾은 희망’ 캠페인을 진행 하고 있다. ‘교실에서 찾은 희망’은 행복한 교실 문화를 위한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으로 오리온은 캠페인의 취지와 회사가 추구하는 ‘정(情)’ 문화가 잘 부합한다고 판단, 2015년부터 4년 연속 후원해오고 있다.

올해 캠페인은 교내 언어폭력 예방을 위해 ‘따뜻하게 말해줘’를 주제로 진행 중이다. 참여 방법은 ‘교실에서 찾은 희망’ 홈페이지에 올려진 동영상 참고해 캠페인송과 플래시몹을 연습하고 미션을 수행한 뒤,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된다.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이 캠페인은 전국 유아기관 및 초중고 학급 또는 12명 이상의 동아리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오리온은 캠페인 진행기간 동안 매주 우수학급을 선정해 총 2400

팀에게 1억6000만원 상당의 대형 스낵박스를 전달할 예정이다.

풀무원은 어린이들에게 바른 식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식생활 전문 교육 강사인 ‘푸드케이터(Food+Educator)’가 유치원, 학교 등 교육기관에 찾아가는 ‘바른먹거리 교육’ 캠페인을 운영 중이다. 지난 2010년 시작된 바른먹거리 교육은 식품표시확인 교육, 미각 교육, 영양균형 교육 3가지로 교육과정을 나누어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다. 식품표시확인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은 식품의 유통기한, 제조일자, 원재료명과 함량 등을 확인하여 바른 먹거리를 선택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영양균형 교육은 각 영양소의 중요성과 풀무원이 제안하는 ‘211식사법’을 함께 배울 수 있다. 211식사법은 신선한 채소, 포화지방이 적은 단백질, 거친 통곡물을 2대 1대 1 비율로 골고루 섭취하는 영양균형 식사법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화두로 떠오른 지속가능성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metroseoul.co.kr

하이트진로, 美서 신제품 ‘자두에이슬’ 홍보 박차

홍보버스로 미국 주요도시 투어
도시별 행사 참여해 적극 홍보

하이트진로가 미국 주요도시를 돌며 신제품 ‘자두에이슬’을 본격 홍보한다고 9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신제품 홍보를 위해 미국 전 지역 주요도시별로 자두에이슬의 특징을 형상화한 랩핑버스를 운용한다. 브랜드 이미지를 노출시킴으로써 미국 현지인과 교민들을 대상으로 자두에이슬의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6일 첫 번째 홍보 도시인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한인축제에서는 자두에이슬 홍보버스를 운용, 퍼레이드를 포함한 이벤트에 참가해 제품 알리기에 나섰다. 자두에이슬 랩핑버스는 뉴욕에 이어 엘리코트 시티(Ellicott City, MD), 애틀랜타(Atlanta, GA), 시카고(Chicago, IL), 댈러스(Dallas, TX), 라스베이거스(Las Vegas, NV),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CA),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CA), 시애틀(Seattle, WA) 순으로 동부지역에서 시작해 미국을 횡단한 후 다음달 2일까지 서부지역으로 이동한다.



하이트진로가 지난 6일 뉴욕 맨해튼에서 진행된 한인축제에서 자두에이슬을 홍보했다. /하이트진로

자두에이슬 홍보버스는 각 도시별 한인축제에 참여하거나 별도의 홍보이벤트

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도시별 행사를 차별화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 법인 소재지인 LA지역에서는 25~26일 양일간 자두에이슬 홍보투어와 함께 할로윈 페스티벌에도 참여하게 된다.

지난 8월 미국 전역에 출시된 자두에이슬은 하이트진로가 올해 1월 선보인 수출 전용 브랜드다. 참이슬의 깨끗함과 자두의 상큼하고 달콤한 맛이 최고의 조화를 이룬 13도의 과일소주로 글로벌 소비자 사전 시음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바 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2016년 자몽에이슬을 출시한 후 2017년 청포도에이슬, 2018년에 자두에이슬, 이슬톡톡 등 다양한 과일연관 제품군을 선보여왔다”며 “대표 브랜드인 참이슬, 하이트와 함께 공격적인 브랜드 포트폴리오 확대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한국 술의 우수성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비비고’ 美서 TV 광고... 밀레니얼 세대 공략

CJ제일제당, 미국서 두번째 광고

CJ제일제당이 미국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 ‘비비고’ 글로벌 TV광고를 새롭게 선보인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미국에서 ‘비비고’ TV광고를 운에어 한다고 9일 밝혔다. 국내 최초 PGA 정구대회인 ‘더 CJ 컵 옛 나인 브릿지(이하 THE CJ 컵)’를 앞두고 한식 대표 브랜드인 ‘비비고’를 알리기 위함이다. 특히 ‘The CJ 컵’ 대회 중계를 통해 노출되는 ‘비비고’ 홍보효과에 TV광고를 연계시켜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새롭게 선보이는 ‘비비고’ 광고 모델로는 한국계 미국인이자 할리우드 배우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배우 이기홍을 선정했다. 밀레니얼 세대의 높은 인지도와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점에서 한식과 ‘비비고’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광고에서는 이기홍과 현지 밀레니얼 세대들이 함께 미국 전략제품인 ‘비비고



비비고 글로벌 광고. /CJ제일제당

미니완탕’과 ‘비비고 만두’를 간편식으로 즐기는 모습을 소개했다. 지난해 광고에서 ‘맛있는 한식을 비비고로 쉽게 즐길 수 있다’는 내용으로 브랜드를 강조했다면, 이번 광고는 실생활에서 간편하고 맛있게 한식 메뉴인 ‘비비고 만두’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인용 기자

업계 첫 고객참여형 ‘차세대 라이프스타일관’

롯데하이마트

고객 참여·스토리중심 콘텐츠 제공

롯데하이마트가 국내 가전유통업계 최초로 고객 참여와 스토리를 중심으로 한 ‘차세대 라이프스타일관’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

‘차세대 라이프스타일관’은 상품 판매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커머스 애플리케이션(앱)과 달리 고객의 이야기로 꾸며진다. 이번에는 신혼 부부 등 총 11개 이야기 콘텐츠가 준비됐다.

롯데하이마트는 고객의 생애 주기별 이야기와 함께 그에 알맞은 주거 공간 스타일을 이미지화 하는 한편, 이미지 속 상품의 태그를 터치하면 정보 및 구매가



능하도록 했다. 또 고객이 스토리에 직접 댓글을 달 수 있고, 소셜네트워크에 공유할 수도 있다.

롯데하이마트는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업데이트하고, 올해 안으로 콘텐츠 스크랩 기능, 고객이 직접 콘텐츠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 등을 보강할 계획이다. 롯데하이마트 문충 온라인기획팀장은 “연말까지 고객들이 직접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공유하는 진정한 의미의 고객참여형 커머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서 기자

세븐일레븐 최고품질 햅쌀로 만든 도시락·삼각김밥 선택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오는 18일부터 도시락, 삼각김밥 등 미반 상품에 올해 수확한 햅쌀을 사용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편의점 도시락을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로 찾는 소비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도시락의 맛을 결정짓는 밥맛이 중요해지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소비자들에게 보다 맛있고 품질 좋은 미반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갓 수확한 햅쌀을 사용해 밥을 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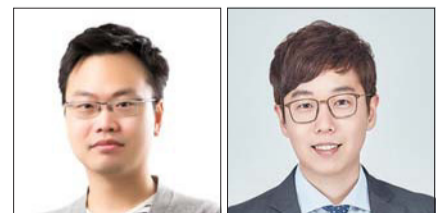
농촌진흥청 최고 품질로 선정된 명품 삼광미(米) 햅쌀을 사용하며, 밥맛이 고소하고 윤기와 찰기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김민서 기자 min0812@

티몬, 신임 대표이사에 이재후 그룹장 선임

유한익 대표는 이사회 공동의장으로

국내 대표 모바일 커머스 기업 티몬은 이재후 스토어 그룹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유한익 대표이사를 신임 이사회 공동의장으로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인사를 통해 이재후 신임 대표이사는 내부 경영을 총괄하며 탄탄히 짜여진 당면 실행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유한익 신임 이사회 공동의장은 4세대 신유통시대를 대비한 중장기 전략 수립과 전략적 제휴 및 신규투자 유치에 집중하게 됐다. 이 신임대표는 관심 기반 소셜미디어 서비스인 빙글(vingle)의



이재후 신임 대표이사(왼쪽)와 유한익 신임 이사회 공동의장. /티몬

성장 전략이사, 티몬 사업전략실장, 티몬 스토어 그룹장을 거쳤다. 유 신임 이사회 공동의장은 티몬 경영전략실장, 핵심사업추진단장에 이어 최고사업책임자(CBO)로서 신사업을 관장하다 지난해 대표이사에 취임한 바 있다. /신원선 기자

“사령관 줄기세포’로 전세계 아토피 환아를 지킨다”

인터뷰

강경선 강스템바이오텍 이사회 의장

2020년 세계 첫 아토피피부염 줄기세포 치료제가 국내에서 출시된다. 국내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통받는 환자는 약 500만명, 그 중 어린이가 70%를 차지한다. 가려워서 잠 못드는 아이를 달래는 부모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가려움증을 줄이려면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야 하지만 부작용 걱정에 마음 편히 발라줄 수도 없다. 이제 그 고통도 끝이 보인다. 현재 개발 완료단계인 줄기세포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는 질병 자체를 근본적으로 치료한다.

세계 최초 아토피 줄기세포치료제 ‘퓨어스텝AD’를 만드는 강경선 강스템바이오텍(이하 강스템) 이사회 의장(사진)을 만났다. 퓨어스텝AD는 태줄 안에 있는 제대혈 줄기세포를 뽑아 대량 배양·생산해 만들어진다. 강 의장은 제대혈 줄기세포를 ‘사령관’이라고 표현했다.

“엄마 몸속에서 자라나는 태아는 엄밀히 따지면 외부에서 유입된 이물질이죠. 그런데 어떻게 모체가 이 태아를 공격하지 않고 10달동안 혈액과 영양분을 모두 공유할 수 있는지를 연구했어요. 그러다 발견된 게 제대혈입니다. 그 안에 있는 줄기세포가 사령관 역할을 하며 모체를 통제하죠.”

강스템은 제대혈에 들어있는 줄기세포를 뽑아 내 이를 자가면역질환에 활용한다. 자가면역질환은 내 몸이 외부 항원이 아닌 정상 세포를 적으로 오인해 공격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류머티즘과 아토피가 대표적이다. ‘사령관’ 역할을 하는 줄기세포 치료제는 몸이 정상 세포를 공격하지 않도록 통제한다.

“출산후 버려지는 태반과 태줄에 들어있는 혈액에서 줄기세포를 뽑아내고 1조개 세포 까지 대량 배양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는 전세계 강스템이 유일합니다. 그 원천기술을 활용하면 아토피는 물론 류머티스 관절염, 크론병도 치료할 수 있죠.”

강 의장은 올해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휴미라’를 예로 들었다. 휴미라는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

가려움증에 스테로이드 연고 부작용 걱정 ‘끝’
‘퓨어스텝 AD’ 태줄서 제대혈 줄기세포 추출
자가면역질환 치료때 몸의 정상세포 공격 통제
500만 아토피 환자 위한 100조원 시장이 타깃



제로, 지난해 기준 약 20조원을 벌어들인 블록버스터 신약이다.

“항체의약품인 휴미라는 리미케이드, 엔브렐 등과 함께 전세계 40조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만 그 약이 듣지 않는 환자가 60%에 달합니다. 특히 이 약이 체내에서 암 발생을 억제하는 생성 물질을 죽여서 암 발병률을 높이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어요. 일개 소대만을 움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지요. 지금 필요한 건 군단을 통제할 수 있는 사령관입니다”

현재 퓨어스텝AD는 임상 마지막 단계인 3상이 진행 중이다. 강 의장은 내년 임상을 마치고 오는 2020년 제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류머티스 관절

염 치료제 역시 임상 1상을 마쳤고, 크론병 치료제는 임상 1상과 2상이 동시 진행 중이다.

세계 최초 아토피 치료제에 대한 매출 기대도 높다. 현재 노바티스가 판매하는 세포 항암치료제 카티(Car-T)는 일회 투여비용만 4억원에 달한다.

강 의장은 “줄기세포치료제 평균 가격이 500만 원인 것을 감안하고, 전체 500만명 아토피 환자 중에 30만명만 퓨어스텝AD를 사용한다고 해도 1500억원이라는 매출이 발생한다”며 “우리는 전체 100조원에 달하는 전세계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스템의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강 의장은 3년 전 혈액과 세포를 직접교차분화해 간 줄기

강경선 이사회의장 누구인가

- ▲56세
- ▲수의공중보건학회 부회장
- ▲일본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 연구원
-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 ▲서울대학교 제대혈줄기세포응용사업단 단장
- ▲강스템홀딩스 대표이사
- ▲강스템바이오텍 대표이사
- ▲강스템바이오텍 이사회 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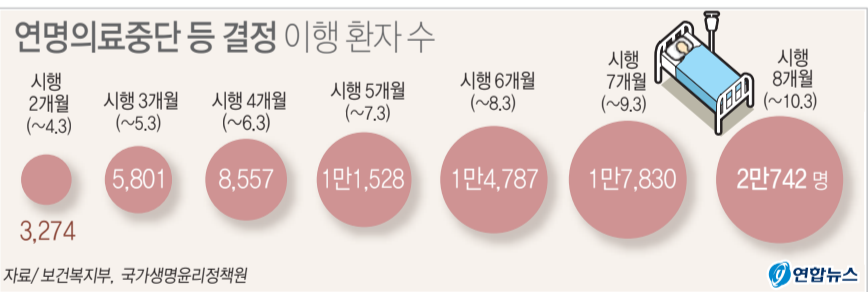
세포, 신경 줄기세포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개발해 셀리포트지에 발표했다. 이 기술을 잘 활용하면 체내 줄기세포를 활용해 간이나 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도 곧 열린다. 강 의장은 오는 11월 7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한국오가노이드(organoid)학회’를 연다. 전 세계적으로 미니장기를 뜻하는 오가노이드 학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현재 윤리적인 문제로 간이나 뇌를 재생하는 것은 규제를 받지만, 실험용 미니 장기를 만들어 의학용의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다”며 “멀지 않은 미래에는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장기를 실제로 만들어내고 교체하는 일도 충분히 가능해진다”라고 설명했다.

강 의장의 꿈을 묻자 자신의 성과 줄기세포(스텝셀)의 스텝을 넣어 만든 사명 ‘강스템’을 언급했다. 회사는 2010년 설립됐다. 강 의장의 대학 선배이기도 한 황우석 교수가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5년 후다.

“내가 개발하는 줄기세포치료제는 내 이름을 걸고 원칙적으로 한단계씩 밟아나가겠다고 굳게 다짐했죠. 그 의지로 여기까지 왔고 이제 아토피 치료제라는 첫 성과를 내놓습니다. 인간의 질병이 10만개인데 현재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은 500개에 불과합니다. 그걸 1000개로 늘릴 때 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연명치료 중단 환자 2만명 존엄사法, 임종문화 바꿨다

이러바 ‘존엄사법’ 시행 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한 환자가 2만명을 넘어섰다. 연명치료로 단지 목숨을 유지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에 이르는 쪽으로 임종문화가 서서히 바뀌고 9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료결정법)이 지난 2월 4일 본격 시행되고서 이달 3일까지 임종기에 접어들어 더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빠져들자 연명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2만742명에 달했다. 연명료결정법 시행 8개월 만이다.

연명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연명료 중단 및 유보환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 1만2544명, 여자 8198명이다. 구체적으로 미리 ‘사전연명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해뒀다가 회복 불가능 상황에 부닥치자 연명치료를 중단한 환자가 154명(0.7%)이다.

또 연명료계획서를 써서 연명치료를 중단한 환자는 6천836명(33.0%)이었다.

미처 연명료계획서를 쓰지 못한 채 임종기에 들어서는 바람에 환자의 의향을 확인하기 어렵게 된 환자 중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치료를 중단한 경우는 각각 6224명(30.0%), 7528명으로 전체 연명료 중단 환자의 66.3%를 차지했다.

아직은 환자의 의향보다는 가족의 뜻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세경기자

유전체·약물반응 기반 ‘암 표적치료’ 길 열려

암 환자 종양 세포 3차원 배양
약물반응 예측해 약물선택 신속

암 환자의 종양 세포를 3차원으로 배양한 ‘종양 스페로이드’를 활용해 맞춤형 암 표적치료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 방법보다 환자의 유전체 특성은 더 많이 반영하면서도 약물 반응 예측은 더 쉽게 만들어 치료에 적합한 약물을 신속히 선택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 선도형난치암연구사업단 남도현 교수팀이 종양 스페로이드의 유전체·약물 반응에 기반을 둔 알고리즘을 이용한 암 환자의 맞춤형 표적치료법을 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유사 단백질 가려내는 ‘신소재 분리막’ 개발

한국연구재단은 김동표 포스텍·최경민 숙명여대 교수 연구팀이 유사한 크기의 단백질을 선별하는 새로운 분리막 제조 기술을 내놨다고 9일 밝혔다.

금속·유기 구조체 기반 기존 분리막은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는 종양의 유전체 특성에 따라 환자마다 효과가 달라진다. 치료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자의 암세포 또는 줄기세포를 배양해 약물 반응을 사전에 확인하고, 환자 특성에 맞는 치료제를 투여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 암세포를 활용한 세포 주 모델은 환자 종양의 유전체 및 분자적 특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고, 줄기세포로 배양한 ‘미니 장기(오가노이드)’ 모델은 종양과의 유사성은 높으나 실시간 약물 반응 예측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남 교수 연구팀은 환자 종양과의 유사성은 높으면서도 약물 반응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종양 스페로이드 활용안을 제시했다. 종양 스페로이드

는 3차원으로 배양된 종양 세포의 원형집합체다.

연구팀은 총 462명 환자의 14개 종양 스페로이드를 수집한 뒤 각 스페로이드마다 60종의 표적항암제 반응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혈액암에 주로 사용되는 치료제 ‘이브루티닙’은 EGFR(상피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 유전자 변이가 있는 암 환자에게도 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 등이 확인됐다.

남도현 교수는 “대규모 종양 스페로이드의 유전체·약물 반응 분석을 통해 치료적 중점을 높임으로써 암 환자의 생존 기간 및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한다. 연구팀 성과는 여기에 있다.

미세 기공만으로 구성된 금속·유기 구조체 안에 단백질이 통과할 수 있는 기공을 만들었다. 비유하자면 골목길만 있던 지역에 고속도로를 뚫어놓은 것과 닮았다. 유기물의 특정 부분과 금속 이온 결합을 절단하는 촉매 화학 반응을 이용한 게 기술의 핵심이다.

/이세경 기자

무협, 자카르타서 한국 의료·미용기술 전파

'K-메디&뷰티 프리미엄 로드쇼' 개최

한국무역협회는 오는 10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강남구청과 공동으로 'K-메디&뷰티 프리미엄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무역협회는 현지 웨라톤 호텔에서 우리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세미나를 시작으로 강남구 소재 15개 의료기관들과 인도네시아 경제단체, 의료 관련 협·단체, 여행사 협회, 모델 에이전시, 금융권 담당자 등과의 비즈니스 상담회를 동시에 진행했다. 상담회에는 인도네시아 전역에 약 500여개의 드러스토어 체인을 보유한 키미아 파마(Kimia Farma), 메디컬투어 1위 여행사 PT. HIS Travel 등 현지 기업 50개사가 참가해 우리 의료기관들과 1대1 상담을 진행했다.

이미용 제품 제조업체인 '모담코리아'는 이날 상담회에서 만난 현지 바이어와 50만 달러



9일 권도겸 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장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강남구와 공동으로 개최한 '2018 K-메디&뷰티 프리미엄 로드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규모의 현장 수출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오는 10일에는 리츠칼튼 호텔에서 현지 미디어를 초청해 강남구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무료나눔의료' 정책을 소개하고 선천성 구순구개열 기형장애를 가진 인도네시아 청년의 무상치료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

이다.

또 지난달 28일 술라웨시에서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의 여파로 고통받고 있는 해당 지역 거주민 대상 무료나눔의료 확대 계획도 발표한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국감 '증인실명제'로 검증 기대



기지 수첩

정연우 (산업부)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해마다 반복되는 대기업 대표들의 '졸소환'이 이어지고 있지만 '기업 망신 주기의 장'으로 여겨졌던 국감이 올해는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증인실명제'가 도입되면서 재벌 총수 대신 실무 경영진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증인실명제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제도다. 증인을 부른 사람과 철회 이유, 과정이 모두 노출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대기업 총수를 부르기에 부담이 크다.

9일 국회와 재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17개 상임위원회 상당수가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재계 총수들로는 400억원 정부 지원금에 대한 부실 운영 의혹을

받고 있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노조 탄압 의혹을 받고 있는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 국감에는 그동안 단골증인으로 나왔던 이재용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국회 일각에서는 '기업인 망신 주기'에 대한 여론의 비판과 함께 이런 방식의 국감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경제 불황 조짐에 최악의 고용 부진을 겪는 상황에서 국회가 재벌 총수의 증인 채택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국감은 정책검증의 장이어야 한다. 재계 총수들에 대한 호통과 망신주기 식의 국감은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니다. 국감은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국회는 주어진 '귀한 시간' 동안 철저한 분석으로 기업검증에 힘써야 할 것이다.

/ywj964@



중기중앙회 사랑나눔재단 인도네시아 지진피해 2000만원 전달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 지난 8일 대한적십자사를 방문해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의 지진피해 복구에 써달라며 성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내뿐 아니라 앞서 네팔과 에콰도르 지진피해, 라오스 댐붕괴 사고 등 국외 재난과 국제구호활동에 꾸준히 성금을 전달하며 중소기업계의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적십자사 김윤희 부회장과 재단 서석홍 이사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오늘의 운세 10월 10일 (음 9월 2일) http://www.saju4000.com

- 48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는 날이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 **60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니 알아서 판단. **72년생** 욕심이 과하면 일이 성사되기 어렵다. **84년생** 후배가 치고 올라오니 서글프다.
- 49년생** 과한 운동을 피하고 심신의 안정을 취하자. **61년생** 낙숫물에 비위가 쏠리는 법이니 꾸준한 노력이 필요. **73년생** 친구가 웃을 일을 만들어 준다. **85년생** 보기 싫은 사람도 아쉬울 때가 있다.
- 50년생** 사소하게 시작된 언쟁이 커질 수 있다. **62년생** 다정다 병이니 배우자에게 지나친 간섭은 금물. **74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부디 자중자해야 할. **86년생** 행복의 원천은 가정에 있으니 가족의 평화가 우선.
- 51년생** 새로운 인연으로 정보를 얻게 되니 이득. **63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니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75년생** 초대받은 손님으로 환영을 받으니 기쁘다. **87년생** 용이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뜻한 바를 이룬다.
- 52년생** 금전 문제로 속상할 일이 생긴다. **64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는 기본 마음으로. **76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어야 복이 들어온다. **88년생** 인생은 새옹지마이니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 53년생**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 **65년생** 변화의 날이니 옷차림이나 신발에 신경을 써 보자. **77년생** 사랑에도 약간의 망상은 필요하다. **89년생** 우물을 찾았으니 두레박은 직접 만들면 된다.
- 54년생** 가는 사람도 잡아야 할 때가 있다. **66년생** 그물을 치지 않고 고기가 잡히기를 기대하지 마라. **78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즐거울 날. **90년생** 눈치가 빨라야 절에 가서도 새우전 얻어먹는다.
- 55년생** 모심으러 갈 때는 정화를 신어야 한다. **67년생** 지나간 인연으로 마음이 혼란하니 중심을 잡아라. **79년생** 아랫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 **91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법.
- 56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이 허전하고 아프다. **68년생** 상대의 작은 실수는 덮어 주는 것이 나에게 유리. **80년생** 충고도 사람을 봐가며 해야 한다. **92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 오듯이 일이 잘 해결.
- 57년생** 자손의 방문으로 하루가 즐겁다. **69년생** 강을 건넜다고 배를 소홀히 해서 큰 낭패를 본다. **81년생**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하면 더 피곤. **93년생** 행운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니니 항상 준비하고 노력.
- 58년생** 버틸 수 있다면 아직 한계는 아닌 것. **70년생** 바람이 분다고 다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82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여지지 실망은 금물. **94년생**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사비도 있을 수 있다.
- 59년생** 검은색 옷을 입을 일이 생긴다. **71년생** 광기와 천재성의 차이는 성공으로만 측정된다. **83년생** 원숭이따위의 거리가 손조름게 이루어진다. **95년생** 생발전이 느려 답답할 수 있으나 현상유지가 오늘은 최선.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8					6			
	2	6		3	5			
		5	9	8				
3	6				8			9
	2							5
9	4				3			2
		1	7	2				
		7	8		4	1		
6								8

			8	7		2	6	
1		6		2				8
4	6							9
3		1			4			
8			2	7				4
	4	9		1	6			

스도쿠 정답

8	2	6	5	9	1	7	3	4
3	6	5	9	8	7	2	4	1
9	4	1	7	2	8	6	3	5
6	2	8	3	4	1	5	7	9
1	3	7	4	6	2	8	9	5
5	8	9	1	3	4	7	2	6
4	6	1	7	2	5	8	9	3
7	5	3	8	6	9	1	4	2
2	9	4	1	8	7	3	5	6
5	1	2	6	3	4	8	7	9

문제 제공 = 보너스

김상회의 4季 부자 욕하지 말고 배워야

진정한 부자는 돈 이야기 하는 걸 꺼린다. 일부에서는 실례로 여기고 심하면 천박하게까지 생각한다. 옛날부터 돈은 더러운 것이라는 인식이 전통처럼 내려온 영향도 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돈에 대해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있다. 돈을 많이 갖기 원하면서 한편으로는 부자를 욕한다. 우리사회에서 부자의 이미지는 대부분 부정적이다. 갑질 과시, 향락 술판 이런 것들이 부자의 이미지로 굳어져 있기도 하다. 이러한 이미지만 가득한데 사람들은 자기도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팔자상담을 오는 사람 중에는 자산가가 많다. 보통 사람들에 비하면 아주 큰 부자들이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인성이 훌륭하다. 돈이 많고 빠가지도 않고 가족에게 충실하며 생활도 성실하다. 타인에게 깽뚫하고 어려운 곳에 기부도 아낌없이 한다. 돈 없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운세는 재물운이다. 돈을 벌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 심지어는 전혀 노력하지 않고 단숨에 큰돈이 들어오길 원한다. 큰돈이 혹 들어오는 걸 좋은 운세라고 생각하고 복이라고 여길 수 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착각임을 알아야 한다. 사주가 좋고 운세가 풀려도 한방에 터지는 복은 없다.

큰돈을 번 사람들 중에는 재물운이 부족한 경우도 많다. 그들은 가난할 때도 부자를 욕하지 않았다. 욕하기는커녕 존경하고 배우려고 했다. 부자를 보면서 돈을 버는 방법을 어떻게든 알아보려 노력했다. 쉬운 노력을 한다. 그 부자들이 운세를 바라고 누워만 있었다면 가난뱅이를 면하지 못했을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사주나 운세타령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탓을 하는 사람은 사주가 좋고 운세가 뛰어나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운세만 날려먹을 가능성이 더 크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이유 없이 부자를 욕하는 것부터 고쳐야 한다. 욕하기 전에 그들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떻게 큰돈을 벌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사주와 운세를 타기 전에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돌아보는 마음을 갖는 게 우선이다. 일은 안 하면서 로또는 항상 바라고 당첨되기도 전에 평평거리며 돈 쓸 궁리를 하고 있다면 돈을 대하는 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런 사람이 돈이 없는 건 운세 탓이 아닌 것이다. 돈을 벌고 싶다면 돈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버려야 한다. 운세가 나빠서 그렇다고 한탄하는 버릇도 버려야 한다. 돈 많은 부자를 욕하지 말고 그들에게 배우는 마음 가짐이 필요하다. 부자가 되고 안 되고는 나의 탓이 가장 크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창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05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158호

이커머스 업계, 차별화 콘텐츠로 ‘미디어커머스’ 전쟁

(콘텐츠를 활용해 고객에게 선보이는 유통방식)

소비자, 온라인 쇼핑 위주 패턴 변화 이해도·재미 높이는 제품 콘텐츠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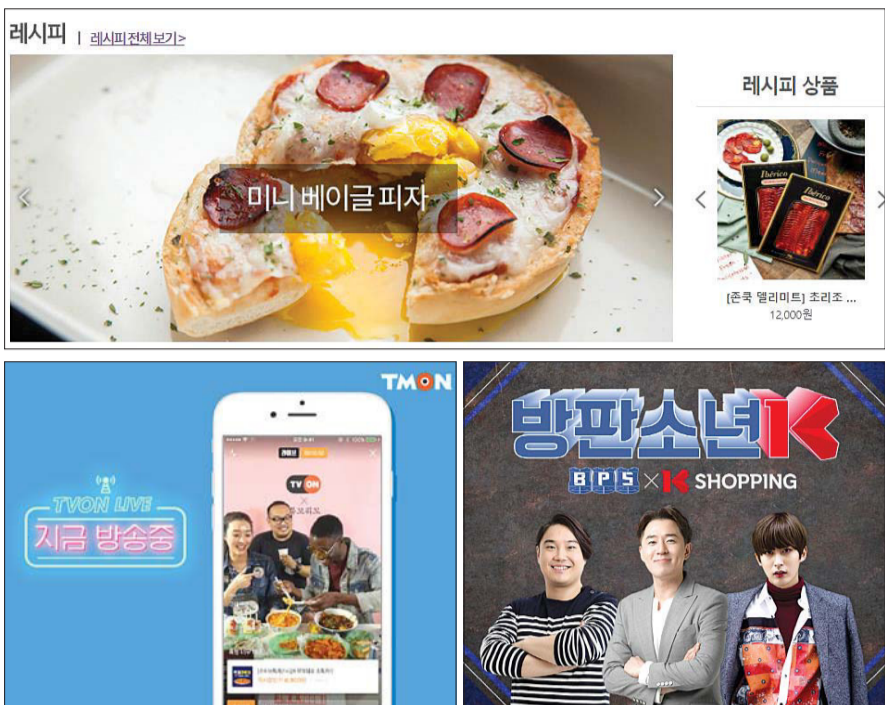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물건을 확인하고 구매하던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쇼핑하는 패턴으로 변화하면서 이커머스 업계 내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업계는 소비자들의 쇼핑 편의성을 높이고 타 쇼핑몰과 차별화를 위해 콘텐츠를 강화한 미디어커머스로 진화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눈으로 상품을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선택에 있어 추가 검색과 후기 비교 등의 번거로움이 존재한다. 이에 소비자들의 상품 이해도를 높이고, 쇼핑의 재미를 더하는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읽을수록 빠져드는 잡지 수준의 제품 상세페이지부터 실시간 방송을 통한 흡수형 제품 설명에 나선 업체까지, 다양한 미디어커머스 마케팅을 소개한다.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가 가득

마켓컬리는 론칭 이후 큐레이션에 중점을 두고 소비자들이 좋아할만한 이색 식재료를 꾸준히 소개하고 있다. 국내에 아직은 생소한 수입 향신료나 재료들을 레시피 카테고리에 활용법을 함께 소개해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포치니 크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마켓컬리 레시피 카테고리, 방판소년단, 티비온 라이브. /마켓컬리·K쇼핑·SBS플러스·티몬

립 파스타, 백골뱅이 에스까르고, 흥연어 파피요트 등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레시피와 함께 링크를 연동해 필요한 식재료 구매까지 한번에 가능하다.

레시피를 비롯한 마켓컬리 입점 제품에 대한 소개는 잡지사 출신의 에디터가 직접 작성하며, 사진도 내부 전문 콘텐츠 팀에서 직접 촬영한다.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든 상품 페이지에는 ‘컬리’s 체크포인트’가 있다. 자세한 성분과 활용법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브랜드 스토리와 즐기는 팁 등을 잡지 기자처럼 제공하며 보는 재미를 더했다.

◆방송 시청하며, 실시간 채팅

티몬은 지난해 3월부터 MCN과 미디어커머스를 연계한 미디어커머스 플랫폼

인 ‘티비온’을 선보였다. 앞서 9월부터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티비온 라이브’로 서비스를 확장했다.

티비온 라이브는 실시간 방송 중 채팅을 통해 이용자끼리 의견을 나누거나 제품 문의도 할 수 있다. 제품에 대해 궁금한 점은 진행자나 담당자가 채팅을 통해 실시간으로 답변해준다. 또, 제품 설명, 모델 시연 등 제품의 효과를 그대로 전달해 소비자들의 구매를 돕는다. 지난 12월 집계한 티비온 라이브 월 평균 편당 매출은 방송을 시작한 작년 9월 대비 150% 증가했으며, 프리미엄 교구 ‘맥포머스’는 방송에서 다양한 놀이법을 소개하고 높은 할인율을 제시해 1시간 만에 매출 1억 원을 기록했다.

◆방송국과 손잡고 쇼핑 예능 기획

디지털 흡수형 기업 K쇼핑은 SBS플러스와 손잡고 미디어 커머스 사업에 나섰다. 지난 1일 네이버 TV와 브이라이브 채널, 유튜브, 곰TV 등을 통해 공개된 방판소년단은 방송인 붐, 유재환, 블락비 재효 등 프로그램 출연진들이 야외로 나가서 상품을 직접 판매한다는 콘셉트의 예능 프로그램이다.

K쇼핑은 지난해 7월 미디어센터 운영을 시작한 이후 1인 미디어 트렌드를 반영한 예능형 흡수형 콘텐츠를 꾸준히 선보여왔다. 쇼핑호스트가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 ‘쇼케이(SHOW-K)’, G마켓과 함께 제작한 짧은 예능 콘텐츠 ‘숯깡’ 등 단순 판매 방송에서 벗어난 방송을 선보였다.

이번 SBS플러스와 제휴를 통해 더 다양한 내용의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양사는 K쇼핑 내 입점 상품 공동 마케팅은 물론, 다양한 미디어 커머스 분야에서 협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전문적 리뷰 제공

국내 가격비교 사이트 다나와는 3억 3000만건에 달하는 방대한 상품정보에 기반한 검색기능으로 가격비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일반정보 이외에도 전 제품군에 걸쳐 분야별로 다양한 리뷰, 동영상, 구매가이드, 관련뉴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의사결정을 돕고 있다.

특히 동영상 카테고리에서는 전문 리뷰어 및 유명 인플루언서들과 제휴를 통해 다양한 동영상, 텍스트 리뷰를 제공한다.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고가의 제품들부터 다양한 식품까지 여러 콘텐츠를 통해 소비자의 상품 이해도를 높여준다. 이외에도 상품평, 입소문 쇼핑, AS이용후기 등 정보공유 공간을 마련해 소비자 중심의 객관적인 쇼핑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사진전 관람하고 기부도 하세요 IFC몰이 오는 21일까지 L3층 사우스 아트리움에서 유명 사진작가 김중만 외 13인(안성진, 김현성, 조선희, 윤석우, 이재호, 안하진, 천홍정, 설기범, 김세호, 선민수, 레이나류, 김동근, 김네오)의 작품 7000점을 전시·판매하는 자선 전시회 ‘아트 슈퍼마켓’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 판매 수익금은 국제구호개발 플랫폼 리아를 통해 질병,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외 아동들에게 기부될 예정이다. /IFC몰

블라우스 입은 유관순?... 산으로 간 호국보훈

국가보훈처 삽화·영상 지적 잇따라

최근 국가보훈처가 페이스북 ‘이달의 독립운동가-국가보훈처’에 올린 삽화와 영상이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호국보훈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훈처는 국군의 날이었던 지난 1일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통해, 10월의 독립운동가를 기념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이미지를 올렸다가 군안팎으로부터 빈축을 샀다.

국적을 알 수 없는 군복을 착용한 남자가 태극기를 배경으로 경례를 하는 모습의 삽화를 올린 것이다. 이에 현·예비역들은 9일 “특징을 잡아 과장과 삭제가 많은 삭제지만 국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군복무 중 사고로 의병전역을 한 예비역 장교는 “5조 6000억의 예산을 사용하는 정부부처가 업무를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2차대전 당시의 무기와 참



국가보훈처가 지난 1일 페이스북 ‘이달의 독립운동가-국가보훈처’에 올린 삽화. /페이스북 캡처

전 참전용사들이 참전 당시의 군복을 입고 예우받는 외국의 전승기념일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보훈처는 ‘박정희 대통령이 광복군이였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부해, 눈총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보훈처 관계자는 “외주영역에 페이스북 홍보시안을 맡긴 것”이라며 “확인 후 삽화를 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보훈처 페이스북 이달의 독립운동가가 역사적 사실을 흐리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형철 기자 captin@

야쿠르트 카트, 미세먼지 알리미로 ‘대변신’

SKT-한국야쿠르트-위닉스 ‘맞손’ 미세먼지 지도 ‘에브리에어’ 출시

실내·외 미세먼지 정보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한국야쿠르트, 위닉스와 손잡고 미세먼지 지도 ‘에브리에어(every air)’ 서비스를 10일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에브리에어는 실내·외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는 미세먼지 지도 서비스다. 가입중인 이동사 상관없이 누구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전국 골목구석구석을 누비는 한국야쿠르트 카트 ‘코코’와 일반 이용자 대상의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 ‘에어비(AirBee)’ 등을 통해 사람들이 숨쉬는 높이에서 측정된 공기질 데이터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는 에브리에어를 통해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 오존,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공기질 상태를 알 수 있다. 특정 지역의 공기



야쿠르트 카트 ‘코코’에 측정기를 설치하고 판매원이 ‘에브리에어’를 시연하고 있다. /SK텔레콤

질 상태를 색깔로 나타냈으며, 공기질이 궁금한 지역은 관심지역으로 등록할 수 있다. 야외 미세먼지가 안 좋은 날에는 공기질이 좋은 실내 장소를 추천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에브리에어 서비스 플랫폼의 개발과 운영을 담당한다. 또 전국 SK텔레콤 대리점 1000여곳에 기 설치된 공기질 측정 센서와 실내외 와이파이(Wi-Fi) 국소 200여 곳에도 센서를 설치해 미세먼지 데이터를 공유할 예정이다.

한국야쿠르트는 전통 카트인 ‘코코’에 공기질 측정 센서를 달고 운행하면서 미세먼지를 측정한다. 한국야쿠르트는 센서가 설치된 카트를 현재 500대에서 내년에는 1만 대 까지 늘려 촘촘히 공기질을 측정할 계획이다.

위닉스는 에브리에어에 연동되는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 ‘에어비(AirBee)’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확산하는 데 주력한다. 이용자는 에어비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현 위치의 미세먼지를 확인하고, 호흡량과 미세먼지 수치를 바탕으로 계산된 개인 미세먼지 흡입 추정치도 알 수 있다.

전국 각지에서 측정된 공기질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중앙서버에 전송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공공 공기질 정보가 더해져 세밀한 전국 단위의 미세먼지 지도가 만들어진다. 3사는 올해 말까지 측정 센서를 1만5000여 개로 늘릴 예정이다. 내년에는 야쿠르트 카트 1만 개와 휴대형·고정형 센서 14만개를 포함해 총 15만 개 이상의 센서를 통해 미세먼지 지도를 그릴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롯데홈쇼핑, 스타트업 지원 ‘디자인 이노베이션 랩’ 2기 선정

7개 기업에 2억원 지원금 제공

롯데홈쇼핑은 지난 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디자인진흥원 분사에서 우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디자인 이노베이션 랩’ 2기 참여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롯데홈쇼핑 전성용 커뮤니케이션부부장, 한국디자인진흥원 윤주현 원장을 비롯한 스타트업 관계자, 벤처창업 전문가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



롯데홈쇼핑 전성용 커뮤니케이션 부부장(왼쪽 세번째)과 2기로 선정된 참여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롯데홈쇼핑

다. 각 기업별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한 심사,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7개의 우수 스타트업을 선정, 총 2억 원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했다.

타트업을 선정, 총 2억 원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했다. /신원선 기자



제품 구입 문의
02-719-7203

합리적인 가격으로 경험하는,
완벽한 비즈니스 퍼포먼스

HP 240 G6 노트북



오픈마켓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해보세요.



GIFT

4만원 상당의
가방 & 마우스 무상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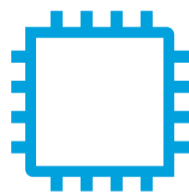


*가방과 마우스는 실물과 조금의 차이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한정판매 40만원대 비즈니스 노트북!

 Windows 10

Win 10 Pro 64Bit



Intel Celeron N3350
(1.6GHz)

1080p

14인치 HD 눈부심 방지
슬림 LED 백라이트
디스플레이(1366X768)



4GB DDR3
SDRAM



500GB(5400rpm)
SATA HDD



DTS 스튜디오 사운드,
통합 스테레오 스피커 2개,
hp노이즈 제거 지원

“3조 투입, 일자리 2.4만개 창출... 역내 매출 38조로”

미래 먹거리 찾아나선 이용섭 광주시장의 100일

광주광역시가 민선 7기 이용섭 號 출범 100일을 맞이해 광주의 미래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전략산업 육성 계획을 야심차게 발표했다.

광주시는 지난 8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5개 자치구, 기업, 혁신도시 이전기관, 대학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략산업 분야 혁신성장 협의회'를 개최하고, 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시했다.

전략산업 육성계획은 광주시가 지역 유관 연구기관, 자치구, 대학 등과 함께 산업별 방안을 마련하고, 전략산업 혁신성장 협의회와 산학연 협의회 의견을 수렴해 확정됐다.

이번 계획에는 대내외 환경과 국가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지역 산업경제 현황과 구조를 분석해 지역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8대 산업·34개 전략·98개 과제 전략산업 육성계획 방안 제시

자동차산업, 완성차공장 유치 추진 “일자리 찾아 돌아오는 광주 만들 것”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이 담겼다.

특히 ▲자동차산업 ▲가전산업 ▲광산업 ▲에너지산업 ▲의료산업 ▲뿌리산업 ▲ICT융합 ▲공기산업 등 8대 산업, 34개 전략, 98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광주시는 민선 7기 동안 2조 9000억원을 투입해 총 매출액을 37조 7000억원까지 늘리고 신규 고용을 2만 3800여 명 창출할 계획이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사업별로는 자동차산업은 ‘자동차산업 서해안 벨트 및 수출 허브도시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친환경 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완성차 공장 유치’를 추진,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낸다.

가전산업은 이중 간 협업을 통해 스마트가전산업을 발전시키고, ‘AI와 융합기술 개발’ 등 특화분야 혁신기반 확대 및

육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한다.

에너지산업은 빛가람혁신도시의 에너지 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에너지 신산업 특화산업 조성’을 추진한다. 더불어 한전공대 설립 등을 계기로 광주를 에너지신산업 메카로 발돋움 시킨다.

의료산업은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에 발맞춰 ‘한국치의학연구원 유치’, ‘안과/광학 의료기기 글로벌화 지원’ 등을 실시해 광주시 의료산업 규모 확대, 경쟁력 구축을 꾀한다.

뿌리산업은 기존 재래 생산방식을 탈피한 ‘IOT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정기술 개발’과 ‘기존 기술의 고도화’ 등으로 고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ICT산업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 도시 조성’과 ‘인공지능 창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역량 확보에 나선다.

공기산업의 경우 ‘공기산업진흥원, 성

능실증센터 설립’과 ‘공기산업 사업화 및 기술 지원’ 등을 통해 광주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운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전략산업 비전 선포는 광주의 미래먹거리와 일자리 등의 비전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 것이다”며 “지난 1일 발표한 민선 7기 일자리 10만개를 만들 일자리 로드맵과 함께 병행해 ‘일자리가 없어 떠나는 광주에서 일자리를 찾아 돌아오는 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앞으로 기업, 대학, 전문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정책에 공동 대응해 산업별 육성 전략을 보완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매월 ‘전략산업 분야 혁신성장 협의회’ 기획 책임자 회의를 개최해 신산업 추가 발굴 및 국비 확보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광주=오종일 기자 raser506@metroseoul.co.kr

장흥군 “바다낚시꾼 회진면 앞바다로 모여라”

14일 장흥군수배 전국바다낚시대회

바다 낚시인들의 심장을 뛰게할 ‘2018 장흥군수배 정남진 전국 바다낚시대회’가 오는 14일 장흥군 회진면 앞바다에서 개최된다.

장흥군 회진면 앞바다는 40~50cm 크기를 자랑하는 국내 최대 감성돔 서식지로 알려져 있으며 올해 대회는 장흥군과 장흥군체육회, 한국낚시방송사에서 공동 개최한다. 이번 바다낚시대회에는 전국 200여명의 강태공과, 중국 베이징에서 10여명의 낚시꾼들이 참여할 계획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국내는 물론 중국 낚시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장흥=위지훈 기자 jh2255@



장흥군 회진면 앞바다.

/장흥군

광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전국 1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0명 합동단속·예방 대책 등 효과

광주광역시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율(9월 말 기준)이 전년 대비 40.7%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국도교통부와 경찰청에서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율을 집계한 결과, 전국 사망자수는 지난해보다 8.5% 감소한 2773명이었다.

지자체별 감소율은 광주가 가장 높았으며 강원(-21.1%), 제주(-16.1%), 경기(-15.4%), 전북(-13.1%) 순이었다.

광주의 경우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지난해보다 42.3% 감소했으며,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와 사업용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도 각각 28.9%, 60.0% 감소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명이었지만, 올해는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광주시는 올해 초부터 자치구, 경찰, 교육청 등 교통 관련 유관기관과 협업팀을 구성해 합동단속, 교통사고 원인조사 및 예방대책 수립 등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한 것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58%에 달하자 경찰청 분석자료를 활용해 무단횡단이 잦은 20여 곳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했다.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신호 등 표준모형을 보급하는 등 교통안전시

설을 보강했다.

또 자치구, 경찰과 협업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소화전 등 6곳을 선정,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 집중단속과 교통사고 예방순찰을 수시로 실시했다.

이 밖에도 영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택시·버스·화물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해 안전운행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운전원 자격여부도 상시 점검했다.

김준영 시 교통건설국장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전국 최고의 교통안전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주=오종일 기자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반’ 설문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는 10일부터 23일까지 시민 2천 500명을 상대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에 대해 1차 표본(설문)조사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9세 이상 주민등록지가 광주에 있고 지역, 성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 시민을 대상으로 유·무선(062-268-0581)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찬반, 찬반 이유, 1박 2

일 속의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묻는다.

숙의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 가운데 찬반여부와 지역, 성별, 연령 등을 종합 고려, 오는 26일까지 시민참여단을 구성한다.

시민참여단은 다음 달 9~10일 숙의 과정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광주시에 발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1차 표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민참여단 의견을 토대로 건립 여부를 결정한다.

/광주=오종일 기자

완도군 美 현지서 700만불 수산물 수출 성과

해외시장개척단 LA 수출상담회 참가

완도군은 해외시장개척단이 미국 LA 현지에서 전복,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가공품 700만 불 어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해외시장개척단은 완도군 4명, 완도식품수출협회 수출기업 7명이 참여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당초 참가하기로 하였으나 태풍 북상으로 안전 점검 및 비상 상황 대비를 위해 일정을 취소했다.

지난 4~5일 이틀간 진행된 수출 상담

회에서는 미국, 캐나다 수산관련 단체 및 바이어를 초청해 완도군 유망 수출 업체와 현지 바이어 1대1 매칭 수출 상담이 진행됐다.

특히 10월 4일 바이어 및 LA 현지 언론인들을 초청해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군을 소개하고 완도산 수산물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져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완도군의 역점사업인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수출 상담이 본격 진행되면서 각 업체별 업무 협약 및



계약 체결이 하나 둘씩 이어졌다.

전체 수출 규모는 700만 달러이다. 다시마 전복염여조합법인(2건·200만 달러), 완도바다식품(100만 달러), 청산바다(100만 달러), 흥일식품(2건·200만 달러), 하나물산(100만 달러) 등이다.

/전남 완도=이제건 기자 wando1106@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35 | 해질 / 18: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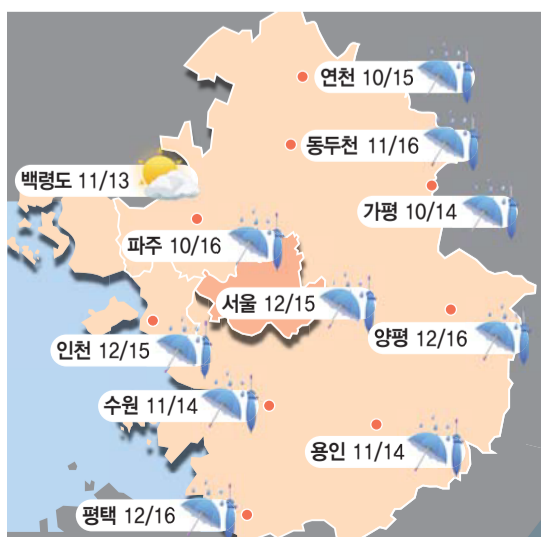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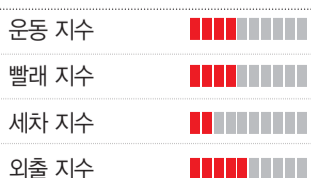
10월

10일(수)

음력 : 9월 2일

수도권 날씨

15~12°C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광주광역시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

교통사고 취약지역·갓길 위주

광주광역시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한 달간 자치구, 경찰청, 화물협회와 합동으로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밤샘주차 관련 민원 다발지역과 교통사고 취약지역 위주

로 실시한다. 특히 법정 차고지 외 아파트, 심야시간대 교통량이 많고 사람 통행이 잦은 주거 밀집지역, 도로 갓길, 횡단 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좁은 2차선 도로 등을 집중 단속한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는 관계법령상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같은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으로, 적발된 차량

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며, 관외 지역 차량은 관할 관청에 이첩해 행정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화물차 주차난 완화를 위해 전곡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430면 주차)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평동3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273면 주차) 조성공사를 하고 있으며, 첨단3지구에도 추가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광주=오종일 기자

최초 18분간 화재 인지못해... 외부 화재 감지센서 없어

고양 저유소 폭발 중간 수사결과

경찰, 피의자에 중실화죄 적용
3년이하 금고·2천만원이하 벌금
피해 43억원... 배상 가능성 0%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측은 저유소 탱크 내부에 불이 옮겨붙기 전 최초 18분간의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강신걸 고양경찰서장은 9일 오전 10시께 고양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열린 저유소 화재 피의자 검거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당일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쉬는 시간에 산 위로 올라가 풍등을 날렸다"며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자 이를 쫓아가다 저유소 잔디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되돌아왔다"고 말했다.

강 서장은 "피의자가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중실화죄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A(27·스리랑카)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2분께 고양시 덕양구 강매터널 공사 현장에서 풍등을 날려 저유소 시설에 풍



9일 오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경찰 관계자가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된 풍등과 동일한 제품을 공개하며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날 경찰은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해 중실화 혐의로 스리랑카인 A(2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등이 떨어지게 해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날린 풍등은 공사현장에서 불과 300m를 날아간 뒤 추락했으며, 저유소 탱크 바깥 잔디에서 오전 10시 36분께 연기가 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폭발은 18분 뒤인 오전 10시 54분께 일어났다.

이때까지 대한송유관공사 측은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는 휘발유

탱크 외부에는 화재 감지센서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앞서 지난 6일 오후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캠프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께 강매터널 공사현장에서 중실화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풍등이 휘발유 탱크 바로 옆 잔디밭에 추락하는 장면

과 폭발이 일어나는 장면 등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풍등과 저유소 화재 간 인과관계를 정밀 확인하고 재차 합동감식을 진행하는 등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A씨와 같이 중실화로 화재 등 피해를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된 풍등과 같은 소형 열기구류는 지난해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사용이 금지됐지만, 아직도 각종 행사에서 풍등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인인 A씨가 풍등의 위험성 인지는 물론, 해당 행위가 불법인지조차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

폭발 사고로 인한 향후 재산피해 보상 문제도 막막하다.

이번 화재로 휘발유 260만 l 가 소실되는 등 추정 피해액만 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A씨에게 전액 배상을 받아낼 가능성은 사실상 0%에 가깝다.

외국인 근로자의 재정 여건상 피해 당

사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구상권 청구 등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대한송유관공사는 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서 이번 피해는 보험사가 대부분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보상 문제와 함께 대한송유관공사의 허술한 보안 및 안전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실상 경기북부지역의 유류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시설이 서서히 추락하는 풍등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시설 내에 화재 발생 후 폭발까지 18분 동안 전혀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소방 분야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화재가 아닌 바람에 날린 불씨가 유증기 배출구로 들어가 폭발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안전 설비만 갖춰어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저유소는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산불 발생 시 이번과 동일한 사고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상태다. /경기 고양=김승열 기자 kimsy@metroseoul.co.kr

미세먼지 처리장치 엉터리 시공업체 적발

서울 민사단, 8곳서 8명 불구속 입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않고 불법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엉터리 미세먼지 처리장치를 설계·시공한 업체 등 7개 환경전문공사업체와 이를 거저 신고한 자동차정비공장 1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자동차 도장작업 때 발생하는 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제거하는 미세먼지처리장치를 부적절하게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대여를 받아 공사해온 사실도 밝혀졌다.

불법 행위로 배출된 페인트 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대기 중 오존 농도

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와 노약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물질이다.

수사는 지난해 9월 일부 자동차 도장시설에서 신고사항과 다르게 설치·조업하다 고발된 업체를 확인하던 중 무등록 공사업체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면서 진행됐다.

시 민사단은 올해 2월부터 공사 관련 견적서, 계약서, 공사대금 이체내역을 확보해 위법행위가 드러난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주먹구구식으로 중고시설을 구매해 조립하거나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 설치하는 등 무등록 설계·시공업을 해왔다.

A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의 상호를 대여해 거저 신고를 하는 등 9차

례에 걸쳐 무등록 영업을 해왔다. B업체는 밀폐되지 않은 도장 부스를 설치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활성탄 흡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오염물질이 대기중으로 배출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C업체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활성탄 흡착시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설계도서를 작성해 구청에 신고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 민사단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지도 점검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들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현정 기자 hjk1@

판교에 공공임대주택 300가구 들어선다

경기도·경기도시공, 2020년 입주

경기도 판교에 300명이 입주할 수 있는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이 마련돼 이 지역 청년 노동자와 창업가의 주거고민을 덜어줄 전망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8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위치한 '성남 판교 경기행복주택' 사업부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과 은수미 성남시장, 김병관·김병욱 국회의원, 권락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부위원장과 지역주민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개최했다.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00번지 부지(5,288㎡)는 경기도가 판교테크노밸리에 보유한 마지막 도유지로 도와 공사는 이곳에 지상 8층, 지하 2층 규모의 경기행복주택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날 공사를 시작했다.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은 전용면적 16㎡(224호)·26㎡(76호)로 판교 청년노동

자와 창업인 270호, 고령자 30호 등 총 3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387억원이며 2020년 8월 준공과 같은 해 10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판교테크노밸리는 2017년말 기준 1,270개 입주기업, 매출액 79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국내 최대의 R&D단지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노동자 6만3000여명의 66.8%인 약 4만2000여명이 젊은 층이어서 청년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기숙사 부족과 높은 임대료로 청년노동자나 창업자의 주거와 교통 문제가 심각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2022년까지 경기도에 장기임대주택 20만호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6만 세대를 청년들을 위한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에, 가장 핵심적인 곳에 장기공공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집이 투기



경기도 판교에서 열린 행복주택 기공식에서 이재명 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

의 수단이 아니라 주거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행복주택'은 정부의 행복주택을 기반으로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 육아에 필요한 주거공간 확대 제공,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3대 특수 지원시책을 더한 경기도형 주거복지정책이다. 임대보증금이 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고,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의 40~100%를 도가 지원한다.

/경기=김승열 기자

"서울로7017서 야외형 탈출게임 즐겨요"

오늘부터 '시티 오브 러브: 서울'

서울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션을 수행하며 서울로7017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ICT 기반의 야외형 탈출게임 '시티 오브 러브: 서울'을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실내에서 즐기는 방탈출 게임을 야외의 개방된 장소인 서울로7017에서 어드벤처형으로 현장감 있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게임은 ▲커플을 위한 '편지' ▲힐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처방전' ▲두뇌 게임을 즐기는 사람을 위한 '소원' 등 총 3개 테마로 이뤄져 있다. 3개 프로그램은 10일부터 11월까지 무료로 운영된다.

미션이 적힌 게임키트를 현장에서 수령해 '리얼월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관광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게임 참가자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게임키트를 들고 지역에 따라 서울로 7017을 돌아다니며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참여자는 숨겨진 단서를 찾아 문제를 풀며 남은 이야기를 완성시켜야 한다. 결



'시티 오브 러브: 서울' 홍보 포스터. /서울시

과는 각 테마별로 다르다. 미션을 완수한 사람에게는 약현성당, 남대문 등 서울로7017 주변 추천 관광지 정보와 인근 카페, 와인바, 피자가게, 맥주집, 아이스크림 가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이 앱을 통해 제공된다.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해 '에어비엔비'는 3000, 5000, 10000번째 미션을 완수한 관광객에게 30만원 숙박상품권을 증정한다. 우수체험 후기 작성자에게는 3~30만원 상당의 숙박상품권을 제공한다.

/김현정 기자

폐염전에 31억 투입 '자연마당' 조성

인천시, 휴식공간 등 2020년 완료

인천시는 인천내륙지역에 남아있는 최후의 폐염전 지역인 소래습지생태공원에 자연마당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환경부 국비보조사업으로 공원 내 습지와 그 주변 일원 50,000㎡에 다양한 생물서식지 조성생태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3년간(2018년~2020년) 총 30억9000만원을 투자해 2020년 완료할 예정이다.

소래습지생태공원은 과거 1970년대 전국 최대 천일염 생산지였던 곳이었으나 소금생산 중단과 토지이용 변화 이후 지속적인 육상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해수 유입 중단으로 염생식물군락의 면

적 감소로 도요류, 물떼새, 저어새 등의 서식지 감소 및 생태적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

시는 자연마당조성사업을 통해 공원 내 갯벌과 염생식물을 복원해 다양한 생물의 서식공간 제공과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문화체험프로그램을 통해 해양도시 인천만의 고유성을 느낄 수 있는 시민체험의 기회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안상윤 인천대공원 사업소장은 "소래습지생태공원 자연마당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인천의 생태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다양한 해양생태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소래포구와 연계한 관광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산업] 삼성전자 시토론회 직원 4만명 참가 05



Life

[헬스케어] 사령관 줄기세포 전 세계 아토피 환아 지킨다 L2



서울역사박물관 기증유물전시실에는 1960~70년대 파독 간호사들의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역사박물관을 찾은 시민들이 '서울1000년 타임캡슐'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서울의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역사 산책을 시작하는 도시 별자리 출발점

☆ 되살아나는 서울의 그늘

④ 서울역사박물관

상설전시실 절반 조선시대로 채워 한양 육조거리·도성대지도 등 전시 시민들 기증유물전시실도 마련 6.25 참전 군복·獨 간호사복 공개 타임캡슐엔 1994년 서울모습 담아



서울역사박물관을 방문한 어린이들이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있다.

지형과 한 뫍으로 조형된 아름다운 도시 서울은 조선왕조의 한양부터 식민시기 경성, 대한민국 서울에 이르는 육백년 수도이다. 서울시는 종로구 새문안로 경희궁 터에 수도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도시역사박물관을 조성해 지난 2002년 개관했다.

박물관은 경희궁 터 2만9786평 중 유물이 발굴되지 않은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6100평 규모로 지어졌다. 박물관은 기증유물전시실과 기획전시실, 상설전시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는 서울 이야기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지난달 16일 서울역사박물관을 찾았다. 관람 순서를 따라 조선시대부터 해방 이후까지 서울의 역사를 소개한 3층 상설전시실로 올라갔다. 전시실은 조선시대,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 고도성장기 등 시대별로 4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다.

상설전시실 1층은 한양 정도부터 개항 이전까지 조선시대의 서울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한양의 육조거리(조선시대 6개 중앙관청이 있던 광화문 앞대로)와 시전 등이 모형으로 재현되어 있었다.

조선시대 제일의 변화가 운중가를 작

은 크기로 만들어 놓은 전시물이 가장 눈에 띄었다. 가운데로 난 큰길을 중심으로 양옆에 시전 상인들이 줄지어 앉아 물건을 팔고 있었다.

용산구 청과동에서 온 김정현(14) 군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을 볼 수 있어 신기하고 재밌었다"며 "조선시대 사람들이 명동이나 이태원에 오면 이런 기분일까"라는 생각을 하며 둘러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물관 한켠에는 가로 188cm, 세로 213cm의 거대한 크기의 도성대지도가 전시되어 있었다. 현존하는 서울 지도 중 가장 큰 지도로 1753~1764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진경산수화 기법으로 만들어진 지도에는 관청, 도로, 하천 등의 정보가 적혀 있었다.

아이와 함께 지도를 살펴보던 이수정(35) 씨는 "처음에는 단순히 그림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지도였다"며 "GPS나 카메라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이런 지도를 만들었는지 정말 대단하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강서구에서 온 전은영(27) 씨는 "박물관 전시 내용 중 조선시대가 좀 빈약하게 느껴졌다"면서 "조선의 역사는 500년이 넘는데 대한제국과 마찬가지로 한 구역에만 전시되어 있어 아쉬웠다"며 눈살을 찌푸렸다.

서울역사박물관 관계자는 "시기별로 공간을 할당해야 한다는 건 편의적인 생각"이라며 "상설전시실의 반을 1층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공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 시민의 삶이 도시의 역사로...

상설전시실 관람을 마치고 기증유물전시실이 있는 1층으로 이동했다. 새하얀 간

사복과 간호사협회 회원증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유물은 1960~70년대 파독 간호사인 김진향, 숙희Stadler, 서영, 서의옥, 안차조, 한정로 등이 기증한 것이었다.

송파구에서 온 박지선(26) 씨는 "당시 한국인 간호사들이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낯선 땅 독일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짐작조차 가지 않는다"면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들을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미소를 지었다.

질은 카키색과 베이지색 군복도 눈에 띄었다. 50년대 군용품품을 제공한 기증자의 남편은 6.25 전쟁 중인 1953년 임관해 1967년 대위에 예편했다고 한다.

이날 박물관을 찾은 윤모(35) 씨는 "반세기 전 군복을 통해 참혹했던 전쟁의 참상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었다"며 "우리 뒷세대에게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다. 윤 씨는 이어 "전시물 중 일본인이 기증한 유물이 꽤 있던데 서울역사박물관에 왜 이들이 제공한 물건이 있는 거냐"며 의아해했다.

서울역사박물관 관계자는 "일제강점기 시대 이후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일본인들이 서울에 대한 자료를 모아 박물관에 기증한 것"이라며 "희귀한 유물이 많아 역사적 가치를 따져봤을 때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 전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 모양의 타임캡슐 전시물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서울1000년 타임캡

슐'은 1994년 서울의 인간과 도시를 주제로 당시 서울의 생활, 풍습, 인물, 문화예술을 상징하는 문물 600건을 선정해 1000년 후 개봉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됐다.

보신각종 모양을 본뜬 전시물 안에는 한국주택은행에서 발행한 주택복권과 쌍방울 속옷, 1993년 개봉한 판소리 영화 서편제 테이프 등이 담겨 있었다.

타임캡슐을 유심히 살펴보던 황승택(26) 씨는 "서울 시민의 삶이 모여 한 도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면서 "어른 집에 가서 박물관에 전시될 만한 물건이 있는지 찾아봐야겠다"며 활짝 웃었다. 황 씨는 "무공훈장증, 대장계급장 등 간단한 설명되어 있는 기증 유물에도 전시 배경이 자세히 나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서울역사박물관 관계자는 "기증자들이 설명해준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팸말을 제작한다"며 "유물이 너무 오래되어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다양한 얘기를 담는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